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오늘의 한국 政治 심층진단

民主主義 비용 지불 아무도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두가 좋은 것이라 하면서도 그 비용은 아무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모양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민주주의이다” “입법부는 無法府, 惡法보다도 더 나쁜 게 無法이다”

동아일보사장을 지낸 원로 언론인 權五琦씨의 정치 현실 진단이다.

“현실 정치는 욕먹는 일. 정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선 대통령이 욕먹을 각오로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매일 매일의 생활철학을 언론이 제공해야 한다. 그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

서울대학교정치학교수를 역임한 盧在鳳 전 국무총리의 현실 처방이다.

대한언론인회는 8월 20일 서울중구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무궁화실에서 權五琦 전 사장과 盧在鳳 전 총리를 초청, 趙昌化 회장 사회로 연중 테마 '언론과 국익' 관련 정치대담을 가졌다.

이날 대담에서 權 전 사장은 “코스트 의식이 너무 없는 게 우리 정치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빼먹을 생각만 하지 기여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우리 정치는 정치사상의 뿌리를 잊어버렸다”면서 “옳고 그른 것은 없고 많고 적은 것만 있어 많은 사람을 자기 편에 끌어 들이려는 포퓰리즘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통일부총리를 역임한 權 전 사장은 “요즘 국회를 보면 '악법보다 더 나쁜 게 무법'이라고 표현한 과테의 말이 연상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입법활동을 하기는커녕 길거리 정치에 매달린다거나 언론학 교수들에게 미디

權五琦

· 동아일보편집국장, 주필
· 동아일보사장
· 통일부총리 역임



때 : 8월20일

사회 : 趙昌化 회장

대담

盧在鳳

· 서울대정치학교수
· 국회의원
· 국무총리 역임



곳 : 한국프레스센터

정리 : 崔熙助 편집위원(중부대초빙교수)

사진 : 吳健煥 상임이사

는 것이다. 좌파 운동권의 대중운동이 원래 소수에 의한 지배를 하면서 명분으로 공을 내세운다면서 공을 많이 내걸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 게 과거 몇 십년의 역사라고 밝혔다.

盧 전 총리는 “소수가 난장판을 벌이고 그 난장판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 끌고 나갈 다수의 의지가 없다면 무정부로 가느냐, 독재정치로 가느냐의 길 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당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으로 보인다”면서 “현실 정치는 욕먹는 일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 가면서라도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고 다수당은 다수당답게 책임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權五琦 전 사장은 “야당이 정국을 어디로 막 끌고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언론 보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며 “언론이 그걸

무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기자회견을 잘 안 하는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피할 수 없는 기본을 도외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權 전 사장은 전두환 정권때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강제 집행한 ‘一道一紙’ 조치가 일제의 전쟁말기 언론탄압책인 ‘잇젠잇시(一縣一紙)’를 모방한 것이란 사실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대담엔 趙회장 외에 文明浩부회장 吳健煥상임이사 成樂五편집위원장겸 주간이 배석했다.

政治人 코스트 의식 없이 빼먹을 생각만

어법 의견조율을 위임하는 따위의 발상을 하는데 이는 모두 국회기능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盧在鳳 전 총리는 “정치에대한 환멸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혁명적 변화의 과정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코스트가 많아지는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그 한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선전 선동 등에 의한 전복 전략, 전복 전쟁이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 그로부터 파생하는 정치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盧 전총리는 특히 “60년대부터 서양에서 휩쓸었던 참여민주주의, 혹은 네오 포퓰리즘 등 다

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이념이 87년 이후 한국민주화 과정 속에 들어와 입헌주의의 기본적인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나타내 정치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상세히 풀이했다.

대의민주정치는 투표를 통해서 소수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인데 직접민주주의는 투표와 선거권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며 소수지배의 원칙을 부정하면서도 국회내 소수 야당원들의 반민주적 작태나 촛불시위가 소수에 의한 조직적 움직임이라는 모순을 낳고 있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 오늘의 한국 政治 심층진단

참여民主主義 - 立憲主義 대결양상

趙昌化 우중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것은 총리를 지내시고 부총리를 지내셨다고 보다 우리 언론의 기둥으로서, 또 사회과학의 태두로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위해서였습니다. 테마는 우리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만, 김대중전대통령의 서거를 포함해서 특정 테마에 국한하지 말고 정치전반에 대해서 두루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7년 이견희삼성그룹회장은 이른바 베이징발언을 통해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라고 폭탄선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세계 일류제품을 다수 내놓는 등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는 나아지고 정치는 4류를 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정치에대한 평가를 먼저 해주시죠.

盧在鳳 한국 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정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일반적으로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이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멸과 불신이 큰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에 아직까지도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템포가 워낙 완만해서 혁명이란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걸 큰 맥락에서 보면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치에서 모든 것이 늘 새로운 실험을 하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코스트가 많아지는 속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혁명적 과정의 근래 현상에서 한국의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남북관계에서 전쟁을 피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전제에서 전쟁을 생각할 때 무기를 쓰는 것만을 전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건 그런 식의 전쟁이 아닙니다. 소위 전복전략 혹은 전복전쟁이라고 해서 역사는 오래 됩니다만, 20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부각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력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는 전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쟁의 새로운 종류로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복전쟁, 전복전략이 계속 수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마치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양태가 또 한국정치에 대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북한의 프로

파 간 다 (Propaganda)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전 선동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증폭되는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국 이 1987년 이후에 정치체제를 민주화 하는 과정에서 학술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참여민주주의라고 해서 서양에서 60년대부터 휩쓸었던 이것이 행동의 방식으로나 사상의 내용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복이라 하는 것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입헌주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결되는 사고와 행동을 낳게 됩니다. 오늘날의 궁극적인 어려움은 직접민주주의적인 움직임이 입헌주의의 기본적인 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양상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정치권에 흡수되기도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를 보는 趙昌化 대한언론인회장.

도 비슷하게 된 게 19세기 무렵입니다. 영화 '레오파드(Leopard)'를 보니까 이탈리아가 중앙집권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시칠리 섬의 명문 귀족 하나가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가는 방향에 공작(버트 랭카스터 扮)은 자기 조카(알랭 들롱 扮)를 시켜서 혁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오늘 무얼 할 수 있는 코스트를 치릅니다. 그게 역사의 코스트예요. 그 코스트 의식이 너무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서 뼈먹을 생각이나 하

양의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왈가왈부 떠들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상인 것 같아요.

서구에서도 민주주의의 제도와 비슷하게 된 게 19세기 무렵입니다. 영화 '레오파드(Leopard)'를 보니까 이탈리아가 중앙집권의 근대국가 형성 과정에서 시칠리 섬의 명문 귀족 하나가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가는 방향에 공작(버트 랭카스터 扮)은 자기 조카(알랭 들롱 扮)를 시켜서 혁명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오늘 무얼 할 수 있는 코스트를 치릅니다. 그게 역사의 코스트예요. 그 코스트 의식이 너무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서 뼈먹을 생각이나 하

삼장(約法三章)이거든. 죽이지마라, 흠치지마라, 시시콜콜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시콜콜 속에 더 많이 점령 돼 가지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사상의 뿌리를 잊어 버렸어요. 신문도 그 중의 하나, 열치기로 따라다니는 꼴입니다.

요새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미디어법이 어떻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지만 기자회견 하나 안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공개된 속에서 묻는 사람도 하나의 public behavior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묻느냐에 따른 것이 있어요. 기자회견이 없다면 긴장감 속에서의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없어요. 얼마전에 월터 크롱카이트(Walter Cronkite, 1916~2009, CBS뉴스 앵커)가 죽고 미국신문을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인 뉴욕타임스의 프랭크 리치가 말했어요. 미국도 기자들에게 약간의 정보도 좀 주어 가면서 제편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모임을 하는 거 보아요. 크롱카이트는 그걸 아주 싫어 했대요. 자기대로 정리한 말을 준비해 하는게 기자회견이고 이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피할수 없는 기본인데 그거 안 하지 않아요. 기자들도 안 하는걸 더 좋아 하는 것 같구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주정치가 좋다고 할 때 기지는 무얼 pay 할 거냐, 또 국회의원에 당선한 정치인에게 낙선한 사람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하고 더 많은 비용을 무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북한에

막 퍼준다 하지 않아요. 퍼주는데 자기 돈 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게 그동안의 정치관 논리입니다. 하루 아침에 얼음이 얼듯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제보다는 나아지는 거 있지 않아요, 이런 걸 정치에서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롱카이트가 댄 래더(Dan Rather, CBS뉴스 앵커)를 평가하기를 "He is not being newsmen, but playing newsmen." 이라고 했는데 많은 것을 함축하는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공적인 일'이란 말이 있어요. 인촌은 공선사후(公先私後)라는 말을 했지만 자신이 먼저 좋아해야 해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 숫자가 많아지면 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거기에 끼여 들어야지, 하는 공은 공이 아니예요.

그런 공이 많아요. 지금 공 팔고 다니는 게 정치 아닙니까. 내가 일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한일관계가 좋아지려면, 한국과 일본 사람의私家 모여 그것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공을 앞세워 어찌구 저찌구 해보아야 안 된다는 거예요.

3면으로 이어집니다.

60년대 유행한 西洋思潮 뒤늦게 流入 北의 선동 맞물려 '전복전쟁'으로 변질

무의식중에 영향을 받아 일반화한 듯한 이런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질서가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돈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權五琦 너무 포괄적인 과제 같은데 요즘 정치는 사상이 없어진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정치 사상은 비전하고도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운동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운동이 성공하면 제도를 만들어요. 그런 모양의 3 요소가 어느 의미로든지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상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운동은 어떤 모양으로 구별하는 지, 또 제도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것을 가려서 해 본 역사가 우리한테는 좀 짧다고요.

지금 민주주의가 다 좋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해본지 얼마 안되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상도 있고, 운동도 있고, 제도도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패키지로 해서 다른 것보다도 좋다고 하는 민주주의를 하려면 비용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모두가 좋은 것이라 하면서도 그 비용은 아무도 부담 하지 않으려는 모

지 기여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사람의 심리, 그게 더구나 4천년 안 하던 것을 40년, 50년 하면서 전부 정치로부터는 뼈먹을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발상, 그것이 한국정치를 잘 안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산주의자들은 '공산당 선언'도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공부, 사상, 이런 쪽이 좀 약해 보여요. 모택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중국의 공자, 맹자보다는 서양의 칼 마르크스 사상을 자신의 뿌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운동을 하는 모택동은 로맨틱하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도의 제왕이 되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사상, 운동, 제도가 일직선으로 죽 가도록 돼 있지 않은 것이 또 근대정치이기도 하다 싶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좀 가려 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해요.

요즘 한국서는 좌, 우파 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국정치에 있어서 방수(放牧)라는 말이 있어요. 방수의 개념이 정치에 늘 있어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데 법을 많이 만들어 법치로 통일을 했다 할수 있어요. 그게 무너진 다음에 들어선 유방은 약법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오늘의 한국 政治 심층진단

대중운동 ‘公’ 내세우며 私益만 챙겨

2면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코스트를 지불하고 엔조이도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하나의 공이 최고로 발현해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게 김정일 정부입니다. 거기엔 제가 없지 않아요. 전제군주정치는 나쁜 것인데 왜 그게 존재했느냐 그렇게 나쁜 게, 존재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중국은 최고 지도자를 뽑는데 몇 사람이 모여 뽑지요. 그런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뽑아야 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최고라고 하는게 요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왕창 해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요새는 온갖 소리 다 해요.

趙昌化 盧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좀 말씀 해주십시오.

盧在鳳 權선배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적인 이익을 통해서 공을 만들어 내는데 정치가 시끄러울 수록 마치 나는 나쁜 것이고 공을 앞세워 명분만 냅다 내세우는 명분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괴리를 보이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요사이 제가 폭발하듯이 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私の 폭발이 공적인 명분을 띠고 나옵니다. 그 자체로선 나무랄 데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제도라고 하는데까지 들어오면 제도와 형식을 통하지 않으려 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게 연결됩니다. 직접적인 행동이 제도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입헌주의는 私와 공을 1차적으로 구분하는 위에 서 있어요. Private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것을 보장해 주고 또 공적인 것을 별도로 합니다. 사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일정한 법적 제도적인 형식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은 무조건 탈취해서 획득하는 건 용납이 안됩니다.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획득을 하거나 유지를 하거나 처분을 하거나 그 세 가지가 맞아들어갈 때 성립되고 확정이 됩니다. 요사이엔 그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식으로 뒀습니다. 재산은 소유 그 자체에 의미가 없고 쓰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입헌주의나 대의민주주의는 대표를 뽑아 무얼 하는데 대표라고 하는 그게 민주주의와 별 의미가 없다, 그게 뭐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왜버려 중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자아에 대한 의식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입헌주의의 기반은 자아가 보증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헌법에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증된 자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자아란 없다, 하



대담하고 있는 權五琦 전 부총리(왼쪽)와 盧在鳳 전 총리.

는 겁니다. 내가 주장함으로써 내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 보증된 자아는 없다, 또 예를 들면 남자로서의 자아, 여자로서의 자아, 그런 거 없다, 내가 주장하면 그게 자아고 주장하지 않는 놈은 존재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양상이 몇 십년동안 크게 바깥에서 유행하다가 몽땅 들어온 겁니다. 이게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세계적인 흐름 속에 involve 돼 대단히 시끄럽고 복잡한 양상입니다. 이걸 Neo Populism

는 국민은 국민대로, 언론은 그걸 근거로 해서 쓰는 거니까 그걸 전파하는데, 혼란에 빠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아까 공과 私를 얘기했는데 요사이 소위 좌파 운동권, 좌·우,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좌우간 운동권을 보면, 대중운동이라는 게 원래 소수가 지배를 하면서 명분으로 공을 내세웁니다. 이처럼 공을 많이 내걸면서 사적인 이익을 챙긴 게 과거 몇 십년의 역사입

代議정치 기본인 少數지배원칙 무시 ‘촛불’ 등 조직적 움직임으로 혼란가중

이라고도 합니다. 서양에선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걸 부르짖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보고 해보니까 제도화를 어떻게 하느냐, 난감하게 됐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해서 결정하지는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경험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최고 500명 단위에서 가능하지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대의제도가 100% 반갑지는 않지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들어와서 지금 한창입니다. 이 직접민주주의, 네오 포퓰리즘적인 것이 바로 북한이 쓰고 있는 프로파간다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도 안 쓰지 않아요. 저 쪽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통에 이번 8·15 대통령 연설에서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뭘 어찌자는 것입니까. 그럼 국가로서 아까 얘기한 비전이 무어냐, 비전이 있어야 정책이 있고 우리 비전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구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어요. 영구분단으로 열전(熱戰) 상태만 없으면 그대로 나가자는 것인지, 어찌자는 것인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그 영향을 받고 있

니다. 과거엔 없어서 그랬지만 이제는 뜯어 먹을 게 있다 이거예요. 사적으로 부정부패를 안 해도 공적 기관에 배정된 걸 가지고 나눠 먹으면 그뿐이다, 생각의 세계가 그런 식으로 돼 사람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여야가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權五琦 우리의 정치 빈곤이, 여야가 함께 정치에대한 생각이 없어 소매상에서 뭘 싸게 사면 쇼핑 잘 했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의 얘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뿌리가, 옛날의 정치야 잘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거나 공자 말씀이 이랬다든가 하는, 말하자면 생각에 관한 것은 낡은 거라 하고, 옳고 그른 것은 없어지고, 이제 많고 적은 것만 따지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많고 적은 것만 하나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많은 놈 제편만 들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盧在鳳 네오 포퓰리즘인데 참여민주주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정치에 엄청난 문제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하더라도 소수지배의 원칙입니다. 대의정치, Representative Democracy는 투표를 통

해서 소수가 합니다. 소수의 지배원칙과 직접민주주의가 대결이 돼 있어요. 언론이 우리 사회에 원로가 없고 권위가 다 무너졌다 하는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치학의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수지배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과 엄청나게 상극되는 사고의 흐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촛불시위라든지 노무현씨 죽었을 때 움직임이라든지, 소수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까. 이런 양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현실에 대해서 일반 사적인 생활을 위해서 움직이는 국민은 그걸 잘 모르고 동조하는 식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權五琦 삼국지를 보면 유비하고 제갈량을 비교할때 제갈량이 머리가 훨씬 더 좋고 전부 다 하는 거 같은데 제갈량이 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연극 같은 데 보면 軍師라고도 해요. 투표를 통해 군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렇게 정치에서 많이 노출이 돼요. 군사 자격은 없는데 마누라도 군사고 아들도 군사고 사돈도 군사고, 이런 모양으로 군사를 뽑을것 같으면 기능 분화가 없어요. 공산당에 지금 전부 서열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건 없죠. 서열을 만드는게 좋은 것이라면 서열을 만드는 데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운영입니다. 기능 분화가 덜 돼 있는거 같아요, 전체가 말이죠. 미국의 정치학자 월린(Wolin)의 저서 'Politics and Vision'이 유명한데 그게 원래 60년대에 나온 책엔 마르크스까지 밖에 없어요. 공산당의 정치사상까지만 있어요. 최근에 나온

증보판을 보면 그 이후에 공산당이 실패한 것 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다가 정치에 있어서 아까 放과 收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흩어지는 거 하고 오무라 들이는 거. 내 식으로 하면 放收인데 그 사람은 centrifugal(遠心性的), centripetal(求心性的)이라는 말로 원심력으로 하는 정치하고 구심력으로 하는 정치의 차이를 공산당이다, 좌파다, 우파다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정치파워 게임 같은 것을 보면 나는 한국에도 그때는 흩어졌는지도 잘 몰랐던 것인데 알알이 흩어졌던 것을 수의 힘, 정치로 만들어서 공장도 짓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본 교수 두 사람이 벌써 너댓번 짜 다녀갔어요. 지난 번에 왔을 때에는 당신은 언론탄압을 많이 당한 신문인인데 전두환 때 언론탄압에 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야. 새삼스럽게 무얼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서 하게 된게 마침 미디어법이 법석을 친 거예요. 전두환 정권 때 언론탄압에 관한 밑그림은 일제에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는 기사를 잡아가서 정보부에서 두드려 뺐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언론탄압이라고 말하지만 제도로 한 것은 ‘一道一紙’입니다.

4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오늘의 한국 政治 심층진단

‘惡法보다 더 나쁜건 無法’ 되새길때

3면에서 이어집니다.

그 1도1지가 바로 일본 놈들이 전쟁 말기에 했던 ‘잇겐잇시’입니다.

‘잇겐잇시’를 일본 교수들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게 없는 것이지.

일본만 그런게 아니고 유럽의 젊은 사람이 쓴 ‘post war’라는 책을 최근에 보았는데 그 책을 보면 유럽 역사라는 게 잊어버리는 작업이야. 戰前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는 작업이 역사라고 그 사람은 강조해서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을 학살한다든지, 유대인이 어디에 살지 못하게 내쫓는 거 있지 않아요. 이걸 그때 유럽이 다 했다는거야. 프랑스에 비시정부가 들어서서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쫓아낸 걸 다 잊어버렸 다. 이겁니다. 오로지 독일만이 유대인들을 학대한 것처럼 역사를 쓴다는 겁니다. 전부 일본 놈 것을 배워 언론탄압의 밑그림을 그린 전두환이의 이야기를 하는데 ‘잇겐잇시’를 모르는 사람이 한국 역사 전후사를 공부한다고 다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라면 코스트가 드는데 그 코스트를 누가 누구한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본이다. 이겁니다. 65년에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히로시마 구경을 갔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풀이 제대로 안났어요.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무언가 한마디씩 적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이 ‘price of peace(평화의 비용)’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것은 평화의 코스트란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평화의 코스트라 하는 말은 많이 해도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에 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한국역사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그걸 찾아서 옛날엔 이랬었다 하는 거, 그건 우리 자신들에게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지난날의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상기시켜주는 게 저널리즘의 할 일이라고 보아요.

盧在鳳 3·1독립선언서는 이 영토안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첫 운동이고 문서입니다. 민족이 최고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난 처음 기록입니다. 현대정치로 넘어오는 효시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본다면 요새 언론이 가장 오용하는 레토릭에 속하는 단어의 하나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어쩐다, 합니다. 그럼 매일매일 국민 투표라도 해 보고 국민을 내세우느냐, 하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인 의

미에서의 민족,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한 국가를 형성하는 성원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이죠. 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반도에 두 개의 민족이 있고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꾸만 혼동시키는 양상이 벌어져 엄청난 의식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코스트 문제인데 누가 누구에게 코스트를 지불해야 하느냐, 평등사회가 부득이 원초적인 의미에서 민주적인 정치로 가야한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정치는 말 할 것도 없고 국민 각자가 코스트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휴가철에 쓰레기 하나 정리하지 않고 나가는 거, 이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이거든요. 코스트라는 걸 국민적 차원에서 얘기하면 공덕심이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virtue라고 하지요.

우리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나라사랑, 사회사랑, 이웃사랑, 이런 걸 다 포함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코스트를 지불하는 요구가 정부에 전부 다 낙착되는

대통령 욕먹더라도 질서 바로 잡아야 국회서 할일 외부에 맡기는 행태 한심

겁니다. 가령 쓰레기, 담배꽂초, 그거 치워달라고 세금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국가의 권력, 관료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관료세계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만족시켜주면 독재고 뭐고 다 좋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국회입법의 98%는 관료가 만드는 법안으로 국회의원 이름을 붙여서 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시민단체들이 컨트롤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權五琦 그런 현상을 나는 신문엔 안 나지만 많이 봅니다. 관료라는 것도 해방될 때 조선사람 가운데 관료다운 관료가 없었어요. 금융조합이사 같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죠.

박정희 시대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이 관료세계 밑바닥에 좀 있었던것 같은데 요새는 그게 아주 없는 것 같아요. 저널리즘도 상당히 관료화해 저널리즘은 지적인 양산박이죠. 국회기자가 문교위 담당이면 의무는 몰라도 되는 것처럼 된다고. 이것이 관료화라는 거죠. 관료화가 좋은 의미도 있는데...

趙昌化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회의 현상을 볼때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이 라면서 1차 자격시험을 치러 거른 다음

그 가운데서 후보를 내세워 국회의원을 주민투표로 뽑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權五琦 과거에 학식이 더 많은 사람이 표를 두 배 갖는다거나 세 배 갖는다는 적이 있었어요.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야 입후보 할 수 있다, 하던 적도 있었구요. 그런데 그거 없이 지금 하는 모양이 더 좋다고 해서 해방 후의 종소리 울리듯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한국 여자들의 투표권행사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 여자와 같다고요. 모두 2차대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스(Mass)들이 정치에 참여 하려면 그 매스가 참여하는 만큼의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코스트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좋은 게 왔다고 덤비면 요즘 꼴이 되지요. 요새 국회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괴테(Goethe)가 한 말입니다. 盧 총리께서 세상이 막 바뀐다는 말을 했는데 괴테는 그 무슨 ‘슈트름 운트 드랑(Sturm und Drang, 질풍노도)’이라구 하는, 막

바뀌는 세상에 살던 귀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 괴테가 “惡法보다 더 나쁜게 無法”이라고 했어요. 나는 요새 한국 국회를 보고 있으면 악법 어떻게 하면서 무법을 저지르는 모순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옛날에 모두 겪었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몰려 나가 정치운동을 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미디어법 할 때 언론 교수들을 모아 의견을 조정하고 하는 거, 그거 국회가 할 일을 외면하고 국회 기능을 포기하는 겁니다.

盧在鳳 공천도 그래요. 당 밖에 있는 사람을 시켜 이런 저런 기준을 만들어 공천을 하고, 당이란 것도 고약하게 됐어요.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생각의 흐름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깔려 있어 이걸 고치려면 새로운 상식을 언론이 부여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權五琦 지금 언론도 기지는 노조원인데 노조가 시키는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게 언론인입니다. 또 사주가 임명을 했는데 사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언론인이란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being newsman’이 나오겠느냐고요. 국회만 엉터리로 만들고 있지 않고 언론계고 무슨 계고 그냥 다 그래요.

盧在鳳 헌법에 분명히 재산권이 명시돼 있는데 과업을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점유권은 없어집니다. 사유재산 밖에서 하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런

데 이걸 사유재산 두드려 부수어도 그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적인 유대라고 하는 건 아무도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약화하지요. 자연적인 유대는 역으로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유대를 예를 들면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인데 가족의 유대는 굉장히 강해져요. 세계에서 대학이 인구비례로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을 겁니다.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가는 비율이 84%. 이런 이상 현상을 아무리 제도적으로 하더라도 과외를 막지 못해요. 사회적 유대라는 것이 과거에 귀족주의적인 사회 같으면 하이라키(Hierarchy)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요새 이게 거의 불가능하게 됐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원래 귀족사회를 지칭했던 용어입니다. 평등한 사회라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 섹터마다 룰이 작동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의 경력이고 뭐고 무시하고 전부 신분 획득의 경쟁입니다. 지금 머슴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분획득경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섹터고 룰이 없어졌어요. 가령 언론계라면

언론계로서의 ‘에스프리 드 코(Esprit de Corps, 집단정신, 단결)’가 있어서 거기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오는 겁니다. 집단화한 속에서의 에스프리 드 코가 없어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런 코스트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나올 수가 없어요.

文明浩 평소엔 관창은 교수나 법률가 등도 일단 정계에 들어가면 좀 이상해져요. 정치하면 마구 투쟁적이 되는 것 같아요.

盧在鳳 정치가 모든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게 정치권력이에요. 돈 명예, 권력만 잡으면 모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해지는거예요.

밖에 있을 때는 깨끗한 사람이 안에 들어가면 봉투 받는 거 예사로 생각하고 운동권 사람이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청렴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기름이 번질번질 하지 않아요.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1905~83, 정치사회학자)이 프랑스 좌파를 비판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좌파 너희들, 너희 얘기하는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내가 보기에 딱 한 사람 뿐이다. 시몬느 베이유(Simone Weil, 1909~43, 좌파사상가), 이 한 사람 밖에 못 보았다. 정말로 자기가 주장하는 식으로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 그 외에 너희들은 모두 부르주아야.”

5면으로 이어집니다.

大韓言論人會 '09주제 「언론과 國益」—오늘의 한국 政治 심층진단

길거리 政治행태 언론 보도 말아야

4면에서 이어집니다.

그게 1950년대에 쓴건데 근래에 재출판 됐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정치자본가라고 할까. 좌파들이요새 고생고생 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누가 내놓으려고 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노골적으로. 이 정권 끝나면 난 또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실재가 전혀 달라요.

文明浩 1백40일 가량 무노동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납세자들은 두고 보아야 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盧在鳳 노조 간부들, 무노동 귀족들 아닙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노조전임처럼 못 삽니다. 곳곳에 노동귀족이죠. 참 좋은 용어가 생각나는데 약탈경제라는 겁니다. 약탈경제란 미국에 있는 중국 사람이 중국을 분석하면서 공금을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집어 삼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말예요.

權五琦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국회를 변호할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국회는 원칙대로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공개가 되는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가 없는 정도로 돼있는데 국회 들어가면 막 싸워

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말예요. 그럼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언론사들은 국회보다 더 나은가요. 정치기사는 아무렇게나 쓴다고요, 아무렇게나 써요. 그리고 사주가 탁 칠때, '예' 하고 부동 자세를 취하는 거 같은 것은 김정일하고 별로 다를 게 있느냐고요.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서 국회의원을 보고 손가락질, 삿대질, 돌을 던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론들이 좀 해야 한다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민간이 하는 방송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 전두환때 그거라고. 그런데 전두환 때 언론체제가 좋다는 게 지금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원리로 하고 있지 않고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모양으로 한다. 말예요. 우리 남한에서 언론탄압할 때 일본에서 배워 왔는데 북한에서 하는 거 지금 일본 사람의 덴노, 천황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趙昌化 국회라는 게 다수가 있고 소수가 있는데 다수인 한나라당이 소수인 민주당에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하느냐. 다수가 다수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걸핏하면 극한투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수로서 통제를 못하고 있다. 이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옳은 겁니까 한나라당이 옳은 것입니까.

盧在鳳 기본적으로 조직의 관리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과거엔 명망가란 사람이 몇 있어 당을 컨트롤 했는데 그 명망가들이 지금은 다 은퇴하고 사라졌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니까 전부 도토리 키재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조직으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어요. 과거에 유럽 같은 데서는 당의 관료화라고 해서 이게 무슨 놈의 사회주의냐, 했어요. 우리는 그 형편도 아닙니다. 조직이 왜야 당이 관료화 하지 조직이 아예 와해돼 버린 식입니다. 소수가 난장판을 벌이고 그 난장판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 끌고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비슷한 생각이지요. 전부 다 일종의 무질서적인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추상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무정부로 가느냐, Tyranny(독재정치)로 가느냐, 그것 밖에 길이 없게 돼요. 그걸 제어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철학을 언론이 제공해야 해요. 지금으로 보아서는 별 뽀족한 도리가 없다. 이거예요. 현직 대통령이 당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고있는 형편으로 보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란 이런 현실에 있어서

욕먹는 일이 정치입니다. 욕먹어야 할 일을 욕 안 먹으려고 덤벼들면 아무것도 해결될 일이 없어요. 다수당이 다수당 답게 책임을 지고 그걸 하려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야 되고 또 당 내부를 조화롭게 추스르려면 이걸 해야지, 그걸 팽개치니까 안되는 거지요.

權五琦 입법부가 무법부가 돼버렸어요. 야당이 법안을 제안해 통과하는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국을 어디로 막 끌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신문 보도에도 많이 달렸어요. 그 사람들이 톱으로 막 때려 부수고 하면 더 신나서 카메라를 찍어 돌리고 해대니까 언론이 그걸 무시 해야 해요. 나는 김대중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와' 하는 것도 한국저널리즘 비즈니스라고 보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야당을 신나게 만들고 있다고요.

언론이 중요해요. 언론이 중요한데 관료화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민간이 하는게 좋은 거 같아요. 언론 비판 중에 가장 핵심을 찔러 말한 게 아이젠하워 같아요. "어느 선거에서 당선했기에 언론이 온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발언을 많이 하느냐"

趙昌化 긴 시간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동행

코바코와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기업과 방송이 어깨를 맞댈 수 있는 친구,
국민에게 꿈과 사랑, 희망을 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때릴수록
우리의 친구들과 멋진 하모니를 이뤄
대한민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는 방송광고 영업대행을 통해 방송사의 안정적인 경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kobaco.co.kr

밖에서 본 한국정치

MB, 도덕적 리더십 보여야 한다

만약 화성에서 온 사나이가 요즘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읽을 것인가? 나는 화성인은 아니지만, 떨어져서 워싱턴에 사는 입장에서 서울의 친구들 이야기를 전화로 들어보면 나라 정치의 장래에 대해 여러모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특히 의사당에서 이진투구로 싸움질을 하고 거리로 나서서 선동을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비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요는 주로 좌파 단체들의 대중 선동으로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어떤 정치적 파탄이 오거나, 모처럼 정권을 장악한 보수세력이 차기 대선에서 몰락하는 사태로 연결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짙은 것 같다.

그러나 화성인의 눈에는, 상황이 그리 긴박하거나 불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가 회복할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부로, 또 좌경 정부에서 우파 정부로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이루는 등 한국의 정치적 성숙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가 제 궤도를 되찾게 되고, 경제가 국제 경쟁 속에서 전진을 계속하며, 국민은 교육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려면, MB 행정부가 그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기성 언론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는 시급히 그리고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 결론은 결국 국민이 내리게 되어 있지만,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려면 이들의 헌신적이고 획기적인 활동이 필요할 듯하다.

첫째,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미국의 빛나는 민주 전통을 강조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Yes, We Can”을 선포했듯이, MB도 한국의 민주화가 세계사 속에서 가지는 무게론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개혁을 추진하자는 강력한 정치 철학을 더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자기 방향으로 끌어 안아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런 의미에서 MB가 당초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은 맥없는 전략이었다고 생각된다. 국민이 경제를 알만한 대통령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경제의 활성화가 긴요한 시기였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쇠고기 “춧불 시위”

가 보여준 것처럼 좌파 세력이 정권에서 밀려나기는 하였지만 방향 감각이 뚜렷하지 못한 대중을 부정확한 정보로 선동하여 대대적 항의 운동을 연출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MB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이념의 대결”을 제창하고, MB 행정부가 어떠한 보수주의의 정치를 펴므로써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열매를 국민들에게 듬뿍 안겨주겠다는 주장으로 “냉전시대의 고아”가 된 구 소련식 사회주의의 추종자들을 굴복시켰어야 한다.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MB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먼저 두 방향으로 스스로의 정신무장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개화 초기의 선지

특별기고



진철수

· 본회 회우
· usabriefing.net 주필

운운하는 소리를 해도 현명한 국민들은 들은채 만채 할 것이 분명하다.

넷째, MB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포폴리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자기들의 ‘포폴리즘’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열망하는 것이 통일이지만, 김

전 대통령은 그 열망에 부응하는 방편이 잘못되었었기에 여러 사람들의 신망을 잃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민과 다름없는 대통령을 자처하려 했지만, 결국은 특권층의 속성처럼 되어버린 부패 때문에 비운을 만났다. 투명한 자본주의, 번영하는 민주주의가 MB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리더

십은 대통령에게 설득당하기를 고대하고 있는지 모른다. 부패 부정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실력주의)가 설 땅을 없애버리며 경쟁을 방해한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 나야만, 경제와 문화와 교육이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어서 나라의 경쟁력이 커질 것이다.

다섯째, 민주주의가 옹계 기능하려면, 뉴스 미디어가 믿음직한 소식을 독자들에게 물었다 줘야하고 독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시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의 독자들은 신문을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문들은 편파적이어서 편파적인 기사들만 쓰고 있다고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심한 노릇이지만, 별 도리가 없다.

예컨대, 사실은 보수적 입장에서 썼지만 기사들은 사실 위주로 공정하게 썼다는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주지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주로 신문들 스스로의 몫이다. MBC와 KBS 보도와 논평의 편파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나는 “공공 방송”(public broadcasting) 미디어들은 고품질 작품

들을 만들기 위해 민간 방송 기업과는 별도로 특별히 설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친정부이건, 친야이건 간에 편파성을 지속시킬 경우 그것은 수준 미달의 행위이며 스스로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큰 신문들은 아직도 몇백만부 씩 팔리고 있어 인터넷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전망이다. 따라서 품위를 지키며, 나라 살림의 어젠다(agenda)를 설정해 나갈만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MB를 도와, 혹은 그의 후계자를 도와, 21세기 한국의 궤도를 바로 잡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디까지나 독자들 편에 서서 서비스한다는 겸허한 자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서도 국회의원 이 의사당 안에서 동료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 두 번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1798년과 1856년이었으며, 집단 난투는 아니었다. 의사당에서 집단 난투 사건이 21세기에 여러번 일어난 나라들은 둘 뿐이다. 한국과 대만. [4]

정부지지세력-기성언론 지도력 긴요 포폴리즘 아닌 자유 민주 이념 확립을

자들과 3·1 운동의 지도자들이 모두 갈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양문화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소화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양식있는 서양 정치사 석학들의 힘을 빌어 이 방면의 재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 절차가 빛나가서 뜻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결과를 낳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도 배울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도 짧은 광복후 역사 동안에 두 사람의 장기 집권자들이 상식과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이미 많이 목격했다. MB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세력은 한나라당과 그 구성원들이 공화당 시절에 반공이라는 기치아래 저질러진 악행과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되풀이해서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속죄와 정신무장을 제대로 한다면, 현재 좌파 일부에서 MB에 대해 ‘파쇼’

십”(moral leadership)이다. OECD의 다른 회원국들은 국가 청렴도가 모두 높는데 한국은 만성적으로 낮게 처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21세기 형 도덕적 문화가 필요하다. 개발독재체제 때에는 성과가 너무 중시되고 어떤 방법이나 경로를 거쳤는가는 경시되었다. 그런 분위기에서 부패는 상습화되었으며, 청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취임 후 MB는 청와대와 각료 인선 과정에서 지명자들의 청렴도 때문에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제도의 개선이나 감독, 감사의 강화로 해결될 정도로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훨씬 심각한 환경이라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 지도층이 썩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임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의 생활문화나 윤리관에 큰 변화를 가져올 힘이 있다. 지금 국



9월 건강포럼 19일 열려

9월 건강포럼이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명동에 있는 ‘이윤수·조

성완 비뇨기과’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 이윤수 박사(사진)는 노년기 우울증 대책에 관해 강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 박사는 노년기의 우울증은 치매로 발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취미

생활과 적당한 운동 그리고 부부간의 화합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건강포럼은 지난 8월에는 여름철 휴가기간으로 쉬었다.

이윤수 박사는 ‘언론인 건강포럼’ 시작 1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유명 언론인들을 위해 건강을 챙겨 드릴 수 있는 강의를 한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 한

다”며 “앞으로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뿐 아니라 여러 방면의 전문가를 초빙해 건강포럼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수 박사는 이어 “작년 12월에 실시한 전립선 무료진료 결과 5명의 전립선 암환자를 발견해 조기 치료 받을 수 있게 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지역政黨 구도 탈피가 최대 과제

DJ이후 한국정치

한국헌정사를 회고할 때 민주항쟁의 해인 1987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은 한국을 현대민주국가로 만든 민주주의의 정착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정치는 민주화과정을 거쳐 이른바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를 착실하게 밟으면서 발전해왔다. 이 기간 동안 정치발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언론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보장과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의회정치와 정당정치 측면에서는 지진아처럼 발육이 지체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 기간이 정확하게 3김시대였기 때문이다. 3김, 특히 김영삼 김대중의 양김은 민주투쟁에 관한 한 우리 헌정사에 불멸의 족적을 남겼으나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발전에는 많은 부정적 유산을 남겼다. 그 주된 이유는 3김시대가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보스 중심의 가부장적 지역당 구도를 고착시켰기 때문이다.

지역당 구도 정치 발전 저해

한국 근대정당의 역사는 1948년 건국을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 헌정사보다 3년이 빠른 1945년, 즉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다. 그 해 8월부터 9월 사이에 조선공산당 한국민주당 등 많은 좌우익 정당이 창당되었다. 좌익정당 가운데 공산당 계열은 건국 직후 불법화되었지만 얼마 후 조소앙의 사회당 등 온건 좌익정당들이 출범해 오늘의 좌우파 정당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 사실은 정당이야 말로 국가 성립 이전에 생기는 정치결사로서 현대 민주정치의 기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 때문에 정당의 발전정도는 바로 의회정치의 발전을 좌우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사는 20년간의 3김 시대에 지역당구도의 고착으로 인해 건전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 건국 후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의 세 권위주의 정권 기간 한국 정당의 판도는 독재 대 민주 세력의 양자구도이기는 했지만 지역으로 갈라지지는 않았다. 이 시기, 즉 1948년부터 87년까지 약 40년 동안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공화당 및 민정당, 그리고 제1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민중당 및 신민당 등은 다 같이 서울과 지방, 그리고 영남과 호남에 고루고루 분포된 전국정당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직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발생한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분당은 한국 정당사상 최초의 지역당시대를 연 재앙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김영삼과 김대중은 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였으나 서로

양보하기를 거부한 끝에 결국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창당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 때 김대중은 같은 영남 출신의 민정당 후보 노태우와 민주당 후보 김영삼이 영남지방 표를 나누어 가지면 자신은 호남과 서울 표로 당선되리라는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었다. 개표 결과

승리는 노태우로 돌아갔다. 그 때 두 김씨가 얻은 1,240만여 표는 노태우가 얻은 828만 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만약 두 김씨 사이에 협상이든, 지명대회에서의 결별방식으로도든 단일화가 성공했다면 선거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물론 분당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인제 같은 룰

특별기고



남 시 옥

· 본회회무
· 전 문화일보 사장

현대 민주주의 정치가 정당정치인 것은 민주정치가 간접 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가 있고, 국회는 정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당이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국가, 특히 그중에서도 내각책임제 아래서는 국회가 정당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기 때문에 이른바 '정당의 출장소' 신세가

되었다. 이 말에 일리가 있다면, 지역맹주 아래 있는 지역당에 의해 지배되는 한국 국회는 사실상 지역보스들의 출장소라는 논법이 가능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이 같은 지역보스의 지시대로 패싸움을 벌이고, 심할 때는 대형 망치와 전기톱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폭력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미국식이 더 바람직하고 또한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민주당과 영국의 노동당은 다 같이 '제3의 길'을 채택해 집권에 성공한 점과 두 나라 모두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 진보정치정상회담(Progressive Governance Summit)의 주도국이라는 점은 같지만 양자 간에는 약간의 노선차이가 있다. 미국 민주당, 즉 그들이 현재 스스로 부르는 대로 '신민주당'(New Democrats)의 노선은 루스벨트 이래 당의 노선인 케인스식 소득재분배정책에 레이건식 신자유민주주의 요소를 접목시킨 제3의 길인데 반해 영국 노동당의 노선은 종래의 사회민주주의에 대처리즘의 요소를 도입한 제3의 길이다. 미국의 민주당은 스스로를 호칭할 때 그 동안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떨어진 'Liberals'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Progressives'라는 표현을 쓴다. 버락 오바마가 그렇고,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 민주당의 싱크 탱크인 진보정책연구소(Progressive Policy Institute)는 그 임무를 "21세기 미국을 위한 새로운 진

보정치(a new progressive politics)를 정의하고 진흥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민주당이 마련한 뉴민주당선언안이 미국 민주당의 뉴올리언스선언과 비슷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미디어법안문제로 장외투쟁을

하는 통에 당내 논의가 중단되고 있는 이 안은 그 동안 민주당이 공정한 분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반성하고, 그릇된 보수와 낡은 진보와 선명하게 다른 중도개혁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을 지향한다고 강조하고,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선언안을 보면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같은 변신을 통해 차기 집권구상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한국의 민주당이 이런 변신을 수행함으로써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지역당의 이미지를 탈피한다면 한국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처럼 보수적인 한나라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양당제도의 가능성을 내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DJ가 별세하기 전 노무현과 함께 자신을 일컬어 '진보진영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사실을 유의할 때 그의 후계자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보수-진보 양당체제의 개막도 탁상공론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2]

보스중심 청산 政治선진화 이를 계기 政策중심 보수 - 진보 兩黨체제 바람직

위반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분당되지 않았더라면 박정희시대부터 있었던 지역차별 시비나 지역감정 문제는 남았겠지만 오늘과 같은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지역당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전적으로 지역당 구도에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단순화가 될 것이다.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에도 문제가 있고 국회운영방식에도 문제는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역당 구도가 지역 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성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선진국가에 공통된 정책정당 중심의 정치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 사실만은 강조되어야 한다. 정당은 같은 정치적 이념을 가진 이들의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역맹주가 지배하는 지역당 구도에서는 이념정당, 정책정당은 존립하기가 어렵다. 정치이념을 보수와 진보라는 기준으로 나눈다면 영남에도 진보가 있고 호남에도 보수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영남의 진보와 호남의 보수인사는 배신자가 되고 선거에서 당선되기가 힘 든다.

화하고 정치가 이간희 회장 말대로 4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책정당 시대 열어가야

이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3김시대가 20여 년만에 종막을 고했다. 그렇다면 지역당구도도 이제 끝날 것인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차피 정치도 전환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새로운 현대적 정당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다면 타성에 젖은 어떤 유력자가 DJ의 빈자리를 계승해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지역당 구도를 계속하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념정당·정책정당시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각 정당이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정치판도를 만들어 정치선진화를 이룩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의 정치를 정책정당시대로 이끌 것인가. 이 문제는 정계와 학계와 언론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정치안정을 위해 이념과 정책이 서로 다른, 보수 진보 양당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수 진보 양당제도를 채택해 정치가 안정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영국과 미국이

6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이어 이번 11월에는 대한언론인회 회원은 물론 희망하는 전직 언론인들

을 상대로 한차례 더 진료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년간 열린 건강포럼에는 매월 모임과 전립선 검사

일을 포함해 모두 370명 이상이 강의를 들었고 참가자들에게는 수시로 참가 선물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이운수 비뇨기

과'를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진료 혜택을 주는 등 대한언론인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2] <李保吉 편집위원>

미디어法, 한국사회 禁忌 轉機

지난 2009년 7월 31일 한국의 방송사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미디어 관련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을 통칭함)이 극렬한 대치 속에 통과되었다. 현재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지만, 이 소송은 법률의 처리과정에 관한 것이지 법률의 내용에 대한 판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무효화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한번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약 1년 여 동안 미디어관련법을 둘러싼 논쟁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토론문화와 상호이해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이 안타까웠다. 한 쪽은 관용과 설득이, 또 한 쪽인 합리적인 토론과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

이하에서는 객관적 시각에서 이번 미디어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의 입법과제를 점검해 본다.

미디어 관련법은 여론독점력 형성의 가능성과 위험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송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먼저 즉 여론독점력의 발생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경우(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PP 등)에는 대기업의 자본이나 상호간의 겸영을 비교적 넓게 허용하고 있다.

개정 전 방송법에서는 대기업 자본이 투자되는 경우에도 여론독점력이 발생할 우려가 적고,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방송사업 유형에는 대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되 지나친 지분 투자로 인한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규제는 위성방송사업분야다. 대기업은 위성방송사업에 49%까지만 소유가 가능했었으나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철폐되었다. 또한 구법에서도 PP사업과 SO사업에는 특별한 대기업 지분제한 규정이 없었다.

반대로 여론독점력의 발생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는 대기업이나 신문의 지분참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개정전 「방송법」에 의하면 대기업·일간신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 포함신문)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의 지분 취득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방송사업유형은 모두 '전국단위의 뉴스'를 방영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SO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역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으나, 보도 및 논평이 전국단위로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위의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세 가지 유형의 방송사업에 한정된다.

개정전 「방송법」에서는 여론독점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론형성력이 매우 큰 위의 세 가지 방송유형에 대해서는 1인 지분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대기업의 참여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방송법 개정에서 있어 정치권의 입장이 갈린 것은 이 세 가지의 사업유형에도 대기업이 일정부분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의 문제이었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방송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외부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의 세 가지 방송유형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였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만일 위의 방송유형을 대기업이 소유할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에 의한 방송시장과 여론의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특별기고



지성우

· 단국대 법학과 교수

15조 제3항에 의하면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지난 2009년 7월 31일 미디어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미디어간 상호겸영과 대기업 자본의 진입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중요한 내용들에 한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 지분 및 소유한도를 허용·상향 조정하였다.

종래에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는 30%였으나 이를 40%로 상향 조정하여 1인에 의한 방송사의 지분매집 및

였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공개해야 하며,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에 대한 진입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여론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셋째, 여론독점력 방지를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제한하였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여론다양성의 보장을 위해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과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매체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하여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업의 미디어 소유 및 미디어기업간 겸영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미디어 융합시대에 소유 및 겸영을 언제까지나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미디어의 소유·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미디어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도 아니다.

미디어의 소유·겸영 금지·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적·수단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미디어의 소유·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소유·겸영 금지 또는 제한 제도는 그동안 한국에서 여론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만일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정책수단을 포기해야 한다면, 의견의 다양성의 기준과 이를 유지·고양할 수 있는 유효한 사전·사후의 대체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진입 규제모형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주도력의 형성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9면으로 이어집니다.

대기업-신문의 放送점영허용 進一步 事前규제방식 따른 부작용 보완 필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법에서는 방송사업자간의 겸영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겸영규제'라 함은 '동일사업자가 같은 지역 내에서 다른 서비스 영역에 속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소유하는 행위의 금지나 제한 또는 단일 회사가 도달할 수 있는 전국범위의 시청자점유율을 제한하는 규제'이다.

겸영규제는 한 사업자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용이하게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방송법에서도 역시 다양한 겸영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법에서는 여론독점력 방지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개정전 신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었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었다. 또한 개정전의 동법 제

경영권 확보를 도모하였다.

또한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한도를 10%로(원안 20%), 보도전문PP에 대한 소유한도를 종합편성PP와 마찬가지로 30%로 조정하였다.

둘째, 지상파방송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 신문사업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진입을 허용하였다.

즉 개정전 신문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일간신문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간신문이 종합편성PP와 보도전문PP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교과서 개편 국가 정체성 바로 잡아라

“어떤 사회나 그 사회의 정신적 기저(基底)를 진작시키는 이상이 없이는 존속할 수 없으며 그 사회 조직의 지도원리에 대한 명백한 인식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위대한 문명의 시대란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된 시대다.” 70년대 서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위기에서 지스카르 데스탱이 경고한 말이다.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전대통령은 국민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어떠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국가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대통령은 최소한 국가의 정체성과 규범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성의 위기다. 좌경 정부 10년을 청산하라고 선택한 이명박 정부가 국가의 이상 이념 국가 운영 역사교육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며 임기응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붕괴되자 철학자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the end of history)을 선언했다. 후쿠야마는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막이 오른 스탈린 체제의 세계공산화 막간극이 1991년 대단원의 막을 내

리자, 프랑스혁명 와중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역사는 종말을 고했다”는 헤겔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말했다. 20세기말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는 핵전쟁의 공포를 물고온 냉전의 주범 세계 공산화가 허구였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후쿠야마는 결론지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소멸한 마르크시즘의 유령이 한반도에서는 21세기 초에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마르크시즘을 변형한 김일성 세습체제의 주체사상이 한반도 남쪽의 친북세력까지 세뇌시켜 “적화통일도 좋다”는 반국가 음모가 공공연하게 독버

섯처럼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국가가 몰락하는 세기말 대전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친북좌경 세력이 대한민국 60년 역사는 친일과 독재로 얼룩진 실패한 역사로 단죄하고 북한의 이념에 동조하는 여론몰이로 북의 핵 개발을 도운 꼴이 되었다. 이런 좌파 정권 10년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인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출범했으나 북의 핵 위협과 친북좌경세력의 선전선동 위세에 눌려 공권력과 공론까지 여전히 이들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친북좌경세력의 선동까지 묵인되고 있는 국가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념 뿐만 아니라 국가 질서까지 혼란스럽다.

時論



박석홍

· 본회 편집위원
·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박정부에서도 대북 문제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좌경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국민 모두가 갖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친북좌경 정부의 대북정책 청산 촉구를 밝힌 국민의 일반의지를 이명박 정부가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확산되

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선기간 중에는 북한의 통일3원칙에 접근한 김대중 전대통령의 6·15선언과 노무현전대통령의 10·4 선언에 대한 문제 인식을 분명히 했으나 집권후 중도 강화론, 중도실용주의 등 시험फल을 띄워 보기도 하더니, DJ국장을 결정하며 DJ 재평가 작업을 하겠다고 전향적인

체와 학계의 항의에 못이겨 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기술 253개 항목이 문제 있다고 발표하고 수정을 권고했으나 수박 겉핥기식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권고안조차 애매하고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1946년 이른바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추수 폭동)’을 평양 주둔 소련 점령군이 거액의 거사자금을 지원해 일으켰다는 것은 당시 평양 주둔 소련군 최고실력자 스티코프 사령관 비망록 공개로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남로당이 10월 농민봉기를 사전에 계획 유도 조종했는지의 문제가 학문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봉기는 조직의 동원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애매하게 수정을 권고했다. 수정권고안이 대체로 이처럼 애매모호해 왜곡 교과서의 전면수정이 없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평가절하하고 건국을 방해한 남로당과 노조의 폭동 등을 민중항쟁으로 기술하며 건국60년 현대사를 왜곡한 좌경 정부의 교과서도 아직 수정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가 과연 역대 대통령 재평가 작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

이다. 교과부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가 만든 미래형 교육과정에 의해 2011년부터 전면수정 역사교과서를

사용 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원회가 마련해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했어야 할 교과서 왜곡 수정이 임기중반에나 햇볕을 보게된다니 놀라운 일이다.

가장 화급한 역사교육은 도외시하고 영어교육 타령이나 한 인수위원회가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확립의 기본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곡된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그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는 풍토가 왜곡교과서 수정을 2011년까지 미루게 한 것 같다. 정부의 정체성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문]

DJ 재평가 앞서 現代史 제대로 인식을

특히 김대중 전대통령 국장을 전후한 대북 접촉과 협상은 유엔의 북한 제재결의 1874호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외교 현안으로 비치고 있다.

현정은-김정일 5개항 합의와 대한민국정부와 공식절차 없이 김대중 평화센터에 통고하고 입국한 북한 조문단과의 북한 경제 지원 논의는 외교 절차 문제를 뛰어넘어 북의 핵보유 인정 등 한국의 안보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까지 석연치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 좌편향 정부처럼 김일성 유신통치와 김정일 선군정치와 타협 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까지 일각에서 제기 되고 있다. 왜 이명

태도를 보였다.

노무현 최규하 전직대통령의 국민장 전례를 깨고 국장을 결정하는데 이어 DJ 재평가 작업 등 현대정치사 정리를 검토하겠다는 20일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중도강화론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또 하나의 정치적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다. 학계는 4억5000만달러 불법송금,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해 더 거론하지 않겠다는 발언, 북의 통일3원칙 등의 등 논란이 많은 김대중 재평가 작업에 앞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검인정한 현대사 교과서 왜곡 부터 바로 잡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단

8면에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여론주도력 형성 저지’라는 추상적인 헌법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과연 어느 정도의 여론형성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즉 ‘여론주도력의 판단지표’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합의나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규제제도만을 폐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여론독점의 예방을 통한 다양성 확보’가 미디어 관련법의 입법목적이기 때문에 만일 사전진입규제제도를 완화한다면 사후규제를 통해 여론독점을 방지하면서도 민

영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규제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독일의 예에 있어서와 같이 미디어 기업의 시청점유율을 일정 수준(독일은 30%)으로 제한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여론독점력 형성방지 제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전혀 규정되지 않은 채 사전규제만 완화한다면 향후 여론독점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최종 법안통과 직전에 여론의 독점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여당내의 바람직한 의견이 수용되어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이 미디어의 여론독점력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신문·방송 등의 구독률이나 시청률이 30%에 이르고 있는 매체가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30%라는 평균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송이 탄생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미디어관련법들은 대기업·신문사업자가 지상파방송·종합편성PP·보도전문PP에 진입·상호겸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금기를 깨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사전규제 방식에 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도미디어의 특성상 일단 허용된 이후에는 여론독점력을 방지할 만한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 미디어관련법에 포함된 여론독점력의 방지 수단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향후 사전규제제도의 완화에 따른 여론독점의 해소를 위해 시청점유율 기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활동 범위 확대 등 보다 정교한 후속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국문]

호들갑 떨다 뒷북논평... 事前 분석보도 아쉽다

‘死後藥方文’이란 말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뜻이다.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는 교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과 일맥이 통하는 말이다. ‘사후약방문’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뉘앙스인데 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풍자에 가깝다.

그러나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은 채 그냥 있는 것이 더 어리석은 행동이다. 잃어버린 소야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키울 소를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줘야 또 잃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요즘의 우리 신문을 염두에 두고 생겨난 속담인 듯싶다. 지난 호에서 ‘현장중계만 치중 해법제시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사실 현재의 기사지각이나 논조의 감량으로는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기사라도 좀 잘 썼으면 하고 바란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지난 7월17일부터 8월2일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로는 박태환 군 등이 베이징올림픽의 금메달 영광을 이어간다는 자신감으로 출전했다. 온 국민은 의당 그리될 것으로 잔뜩 기대가 부풀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선도 통과하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이었다.

박 군이 장도에 오르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은 호들갑을 떨었다. 전지훈련을 통해 지구력을 확실하게 다졌고 특히 박 군은 머리가 좋아 반드시 승리하는 작전을 눈부시게 펼칠 것이며 세계 언론들도 어떤 작전으로 나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

다고 대서특필하면서 ‘황태자 박태환’의 세계선수권 제패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 수영 파벌 싸움의 실체”(조선 7/29), “박태환 놓고 편싸움 벌인 한심한 수영계”(중앙 7/29 사설), “마음 고생, 마린보이에 게 무슨 일이……”(동아 7/29) 등이 그 전날까지 부풀렸던 풍선을 스스로 터뜨려 버린 속보다. 모든 신문의 변명은 이렇다.

신문시평



최병요

· 본보 편집위원
· 전 한국경제 편집위원

초라한 성적에 그치지자 기다렸다는 듯 “농구대표 윤영, 차라리 KBL로 넘겨라”(중앙 8/17), “무관심 협회 무기력 선수, 최악 성적”(한국 8/18), “몸값은 역대... 성적은 역대 무너져”(조선 8/15)라고 뒷북치기로 일관했다.

스포츠야 원래 상대가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인 만큼 다소 이해해 줄 수 있겠으나 사안이 국익과 직

접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접근노력을 아예 포기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수만금(약 2억 달러)을 주고 맺은 계약이다. 러시아의 국내사정이 변화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계약내용의 허실과 이행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다. 러시아 측이 처음부터 한국 언론의 칼날 같은 감시가 버겁다고 의식했다면 초기의 이유 불명한 연기하달에 대해 줄곧 시치미 뻔 수 있었을 것인가.

발사가 여섯 번째 연기된 뒤에야 “2억 달러 내고 로켓시험장 노릇하나”(중앙 8/8), “나로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동아 8/11), “나로호 엔진개발 둘러싼 논란”(조선 8/16) 등의 기사가 조금씩 비쳤다. 그 뒤 러시아의 해명이 약간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의 칼날은 감추어 둔 일이 아니다.

지레 겁을 먹고 칼집에 꽂아만 두면 같은 이내 녹슬기 마련이다.

한편 8월19일의 나로호 발사를 앞둔 시점의 신문지면은 또 호들갑 떨기와 예의 ‘김치국마시기’가 여전했다. “10대 우주강국 시대 열린다.” “우주강국 코리아” “이제는 우주기술 자립” 등 마치 최면

에 걸린 듯 겹치레 기사 일색이었다. 매일경제가 극한기술 자립 등 경제과급효과를 심도 있고 설득력 있게 다룬 것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이밖에 신종플루에 대한 느슨한 대처, 4대강유역 개발사업의 실익에 대한 현지르포, 금강산 및 개성 관광사업 재개의 타당성,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집중취재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나마 8월 중 신문다운 지면을 장식한 기사로는 “정부·의원간 은밀한 거래...청부입법 판친다”(중앙 8/11), “깨진 믿음 향산 화제 암 치료엔 효과 없다”(한겨레 8/10) 등을 꼽을 만했다.

박태환 선수 관련 성급한 전망 망신 나로호 발사 연기도 심층분석 없어

‘박태환의 금메달은 떼어 놓은 당상이어서 독자에게 자신 있게 알려드렸으나 수영연맹의 고질적인 내분 등으로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됐으니 그런 줄 아시라.’는 것이다.

각국 출전선수들의 최근 기록과 훈련 내용, 박태환의 훈련과정과 컨디션을 미리 세밀하게 관찰했다면, 고질적이라는 수영연맹의 대표선수단 관리실태 등을 좀 더 일찍 지적해냈더라면 소를 잃고 난 뒤의 어색한 푸념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에서도 같은 모양이었다. 당초 3위권에 들어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을 판다며 호언장담하더니 7위의

결되는 위성발사(나로호) 문제에 이르면 너그럽게 눈감아 줄 수 없음이 자명하다. 나로호는 그 발사를 7차례나 거듭거듭 연기해야 했다. 그 가운데 6차례는 기술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의 연기 요청 때문이었다. 발사체 1단 로켓의 제작 조립은 물론 제어와 운용 일체를 러시아우주센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우리 기술진은 영문도 모른 채 속앓이를 해야 했다.

발사연기가 거듭되어도 신문은 사실만 전달할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시종 말이 없었다. 로켓발사 자체가 최첨단 기술인데다 기술보유국의 보안이 철저히 해 기술 분석은커녕 접근조차 어려운

光化門 바로 알기 신청 받습니다

9월 역사탐방 25일 교보앞 집합

회원 여러분! 서울을 얼마나 아십니까?

덕수궁, 광화문, 경복궁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40~50년 전의 학창시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9월의 역사탐방은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을 산책하고 근처 KT건물 지하 오션 뷔페에서

회원 단합대회를 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서울의 재발견, Rediscover Seoul에 동참합시다.

9월 역사탐방

일 시 : 9월 25일 오후 5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집합

만찬 : 9월 25일 오후 6시 교보 옆 KT 빌딩 지하 ‘오션 뷔페’

신청 : 참가하실 회우께서는 예약관계상 9월 18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신청바람

大韓言論人會



새 모습을 보인 광화문광장.

북한 관련 보도 '신속'에 매달려 심층취재 소홀

지난 8월 한달은 늦더위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는 많은 사건들이 이어졌다. 이에따라 우리 방송들도 바쁜 한달을 보내야만 했다.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는 전국민에게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고, 김 전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18일 밤 공영방송들은 일제히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KBS는 9시 뉴스가 끝나자마자 곧 바로 보도특집 “김대중 전대통령서거, 인동초의 삶과 꿈”을 편성했고, MBC도 밤11시 20분 부터 “TV 김대중 평전”을 방송, 김 전대통령의 서거와 그의 파란 만장한 일생을 시청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했다. 그를 좋아하느냐, 싫어 하느냐에 따라 국민들 사이의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그가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했다는 점에서 양대 방송사의 신속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나온것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전세계적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경종을 울렸고 방역당국에도 비상을 걸었다. 그러나 신종플루가 이번 겨울에는 더 크게 유행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역당국이 과연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사전경각심과 함께 방역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을 앞장서서 추궁해야할 공영방송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신종플루는 이제 북미대륙이나 남의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코앞에까지 바짝 다가와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들은 뉴스시간에 사망자뉴스를 취급하고 단편적인 방역당국의 움직임과 예방접종백신이 부족하다는 뉴스만 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전 경각심을 환기하고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캠페인방송에 앞장서야 할것이 아닌가. 두 공영방송들이 차일피일 뒷집을 지고 있는 사이, SBS는 지난 19일밤 “뉴스추적”프로를 통해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알리는 심층보도를 내보냈다. KBS도 지난 8월 21일밤 “추적60분”과 23일밤 “취재파일4321”을 통해 뒤늦게나마 신종플루의 위험성을 취재 보도했다.

또 한가지 지난달 우리에게 전해진 대형뉴스는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면담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1년이상이나 경색돼 왔던 남북관계가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환영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김위원장과 현회장의 면담에는 짚고 넘어가야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는 이번 면담 성사 결과 발표를 보면 주객이 완전히 전도됐다는 점이다.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17일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원회가 체결한 5개항의 남북 교류사업을 보도하면서 “김정일 위원장

께서 현회장의 청원을 모두 들어주시었다”고 보도했다. 현회장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 재개, 백두산관광시작, 개성공단 활성화, 그리고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들의 상봉 등을 간청했고, 이를 김위원장이 모두 받아 들여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보도를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적반하장이라 했던가. 남북관계



송시평

신대근

- 본보 편집위원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아닌가. 우리 방송들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놀아나 본질은 외면한채, 아니면 본질은 무시한채 가지에만 매달려 있는 형국이 아닌가. 우리 모두가, 특히 공영방송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심각하게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논란
표현의 자유에는



‘생방송 뮤직뱅크’ 방영중 한 방청객이 ‘이명박OUT’이라 쓴 종이를 흔들고 있다(원래).

신종플루 예방 대대적 캠페인 필요 생방송중 돌발사고 책임 누가 지나

가 검색된 것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를 북한초병이 총격을 가해 사살함으로써 촉발된 것이었다. 당시 우리정부는 박씨 피살에 대해 북측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었다. 이는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김정일이 현회장의 간청에 따라 금강산관광을 다시 “허락”했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으며 무얼하고 있는가.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 됐다고 한다.

둘째로 남북관계의 경색상황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함으로써 유엔제재조치를 받게 됐고, 이에따라 더욱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 김정일·현정은 면담이후 우리 공영방송들의 보도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추석 이산가족상봉도 중요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도 물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어디 갔는지 알수 없고, 우리는 그 주변만 맴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핵무기와 미사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엔제재까지 받게 된 것이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다.

지난해 우리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소위 미네르바의 인터넷기고가 찬반논란의 장이 됐었는데, 최근 다시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란이 한 수입업체의 고소사건으로 고조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다 파는 한 업체는 지난달 MBC의 PD수첩과 여자탤런트 김민선씨를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업체의 주장은 MBC PD수첩의 왜곡 보도와 김민선씨의 개인 블로그 표현으로 인해, 자신을 비롯한 수입업체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김민선씨는 지난해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안전한가”편이 방영된후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미국산 쇠고기를 사다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고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올려 손배소를 당한 것이다. 소송사건이 알려지자 김씨의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측과 그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에는 책임도 당연히 따라

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여옥의원은 지난달 13일 KBS의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논란에 가세했다. 전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인기연예인의 사회적인 영향력은 정치인을 능가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은 사회적여파를 고려해 자신의 한마디가 늘 사실에 기초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자의 생각도 전의원 발언내용과 같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한 발언은 끝내 부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고, 따라서 피해를 막기위해 무한정의 표현의 자유는 있을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쨌든 이와같은 팽팽한 주장에 대한 최종판단은 이제 법원의 판단 몫으로 넘겨졌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을 통해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돌발사고 사전 예방조치 필요

KBS2TV의 “생방송 뮤직뱅크”프로가 지난 8월 7일 생방송 도중에 한 방청객이 들고 있던 “이명박OUT”이란 종이쪽지 글귀를 그대로 방송하는 사고를 냈다. 두 MC가 다음 출연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흰종이에 검은 글씨로 쓴 “이명박OUT”이란 종이를 흔들었고, 이 장면이 4초동안 방송화면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사고 직후 제작진이 카메라 방향을 틀어 더이상 이 화면은 방송되지 않았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임에 틀림 없는 사고였다. 이 사고를 방송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것 같다.

이 소식은 방송가보다도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한층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이 해당 화면을 캡처링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퍼 나르면 서 급속도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네티즌은 “KBS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화면을 잡았다”고 비난하면서 “방청객과 방송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가하면, 다른 네티즌은 “학생같은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방청객을 옹호하고 나섰다. 개인적으로야 대통령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가 보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도 무조건 강요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때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KBS에서도, 이 사고를 일회성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해프닝성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www.kbs.co.kr]

체육기자 60년... 아직도 스포츠 평론가

‘체육기자 60년(1949~2009년)’

지금 집필 중인 책 이름이다.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엔 출간할 예정이다. 책 이름이 말해 주듯 그의 한평생은 오로지 체육기자였다. 현직에 있었을 때만이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여전히 체육기자다. 체육기자인 그에게 은퇴란 따로 없다.

본인 스스로는 서슴없이 ‘바보’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의 경우는 바보니까 한 길만 걸어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은 없고 재미있는 인생이었다. 다시 되돌아 가더라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趙東彪(조동표) 회우. 1925년생. 올해 84세. 팔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 스포츠평론가로 활약하고 있다. 스포츠 코리아(대한체육회 발행 월간지)에 ‘스포츠 인물 열전’을, 서울스포츠(서울시체육회 발행)에 매달 ‘한국육상개척기 영웅들’이란 제목의 연재물을 싣고 있다. 8월18일 대한언론인회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던날 조 회우는 스포츠 코리아 9월호에 게재하기 위해 준비한 원고(200자 원고지 22장 분량)를 지니고 있었다. 작년 8월까지 라디오에 고정 출연해 스포츠 평론을 했다. 요즘엔 부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은 서울시 인라인 롤러연맹 명예회장, 高友체육회(회장 허광수) 감사.

“서울시 인라인 롤러연맹은 서울시체육회 산하 단체입니다. 1987년에 부회장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고우체육회는 고대체육부 출신 스포츠 OB모임입니다. 한때 장덕진 전농림부장관과 이명박대통령이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체육회이사(1980년대)를 비롯, 대한농구협회이사(1970년대), 대한육상경기연맹이사(1980~1990년대), 서울시체육회감사를 10여년간 지냈다.

— 체육기자가 된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서울중앙방송국(KBS전신)방송과장으로 있던 민재호씨의 권유로 체육기자를 시작하게 제 인생을 운명짓는 결과가 된 셈입니다.” 민재호씨는 아나운서로 이름을 날린 분. 1948년 14회 런던올림픽 때 한국 최초의 해외 파견 아나운서였으며 해박한 스포츠 지식의 소유자였다.

조회우는 1949년 2월 공보처 서울중앙방송국 공채1기로 입사, 방송과 보도계에 근무했다.

“당시 중앙방송국장은 구한말인 1907년 고종황제의 밀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이 준, 이위종과 함께 파견됐던 이상설의 조카인 이관희씨였어요. 상식시험을 거쳐 면접을 보는데 이국장이 ‘안행(雁行)이 몇이신가’ 물어요. ‘안행’이란 말의 뜻을 몰라 모른다고 했더니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하면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더라구요. 형제가 몇이나고 몰었던 걸 모른다고 했으니, 그 뜻을 알고 난 뒤에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몰랐어요.”한영섭 회우(전KBS보도실장,현 한국방송인동우회장)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14>

회우초대석

趙東彪

인터뷰 글·사진 / 최희조(본보 편집위원)

가 동기생이다.

당시 보도계 선배로는 김인현(인사동에 있던 민영 문화방송의 초대 보도국장, 주일 특파원 역임), 김우용(종군기자, 서울신문사회부장 역임), 편용호(연합신문, 한국일보 거쳐 국회의원 역임)씨가 있었다. 선배들이 통신지를 나눠주면 아나운서가 읽기 쉽게 원고지에 회화체로 옮겨 쓰는 일이 일과였다. 그러던 중 민과장의 권유로 매일 밤 9시 라디오 골든 타임의 15분 종합뉴스 뒤에 10분씩 내보내는 스포츠 뉴스를 취재해서 기사를 써 넘기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됐다.

— 날마다 10분씩 스포츠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 혼자 취재 다니고 기사를 써 넘기려면 꽤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사거리는 많은 편이어서 시간 때우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혼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취재를 하고 매일 밤 늦게 퇴근하는 생활은 녹록지 않았어요. 출고 기사를 보아줄 사람도 따로 없었어요. 방송계로 넘기면 그 스포츠기사가 그대로 나갔어요. 취재 현장은 지금은 없어진 서울동대문운동장을 비롯, 운동장 근처의 고양군청 강당(탁구), 옛훈련원 자리의 제2운동장(농구), 을지로6가 서울대사범대 강당(체조)이라든가 종로YMCA(탁구, 농구) 등이었어요. 서울운동장에선 한성실업 야구연맹의 야구경기가 리그전으로 열렸습니다. 식산은행, 체신부, 운수부, 조선운수, 전매국, 금융조합연합, 조흥은행, 서울시청, 경성전기, 남선전기 등 실업야구 팀이 참가했는데 그 수준이 꽤 높았습니다. 경기가 없을 때에는 유명한 민승스포츠맨인 이영민씨라든가 농구선수인 이상훈씨 등과 같은 스포츠명사 좌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경력으로 조 회우는 우리나라의 방송체육기자 1호로 불린다.

부친의 잦은 지방 전근으로 경상북도 청도에서 출생했지만 본적지는 서울종로구 신문로.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경북중학교, 대전중학교를 거쳐 서울에서 성남중학교를 나왔다. 1943년 보성전문학교(고려대 전신)에 입학해 46년 졸업했다.

보성전문을 나와 미군부대에서 3년간 통역 일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중앙방송국 공채광고를 보고 응시, 합격했던 것.

— 방송체육기자는 언제까지 하셨나요.

“49년 2월에 입사해 그해 가을 그만둘 때까지 했어요. 50년 6·25전쟁이 나고 1·4후퇴 후 부산 길거리에서 국군에 징발됐습니다. 제주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제주도에서 미군 통역사병으로 근무하다 55년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던 해 11월, 한국일보 체육부기자로 특채돼 본격적인 스포츠기자의 길로 들어선다. 장기영 사주가 직접 면접을 하고 채용했다.



조동표회우는 ‘체육기자 60년’을 돌아보는 인터뷰를 하며 회한은 없으며 자

49년 서울 중앙 방송국 공채 “후회없고 재미있는 人生”...

“당시 한국일보 체육부엔 이용일 부장과 기자 1명이 있었습니다. 체육부가 따로 있던 신문사는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두 곳 밖에 없었어요. 체육기사를 사회부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던 시절입니다. 체육 전문기자도 한국, 서울 외에 경향신문, 동아, 조선일보에 있는 정도고 별로 없었습니다. 4면 체제에 3면의 사회면 한구석 체육난에 주요 경기의 스코어 정도가 게재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장 사주는 1960년 서울경제신문을 창간하고 다음해 12월, 4면중 1면을 스포츠면으로 할애 했다. 오도광, 한인성, 조두흠이 기자로 포진하고 있었다. 일본의 여러 신문과 스포츠 기사를 많이 다루는 미군 성조지(The Stars & Stripes)

스포츠 면을 벤치 마킹해 가며 스포츠 논평기사를 비롯, 손기정과 남승룡 등 유명 선수의 스포츠 일화와 스포츠 소설까지 다루었다.

— 한국 스포츠 저널리즘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군요.

“장 사주는 한국스포츠 저널의 발전에 개척자적 역할과 기여를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한국일보는 또 유독 스포츠 이벤트를 많이 펼쳤어요. 재일동포초청 야구시합이라든가 부산~서울간 역전 경주대회등 스포츠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조 회우는 한국일보체육부장, 일간스포츠국장, 논설위원을 역임, 1988년 서울올림픽 취재까지 마치고 63세때 퇴직한다. 신문사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주간한국과 주간여성을 담당하는 한국일

로 뛰는 84세現役

국일보체육부장
간스포츠 국차장, 논설위원
한체육회이사 역임

· 중부대초빙교수)



미있는 인생이었다고 말했다.

제 1기로 入社 스포츠와 인연 집필 - 방송 활동 분주한 나날

보 주간국장을 2년간 맡기도 했다.

국내외 출장을 다니며 굵직굵직한 스포츠취재를 많이 했음은 물론이다. 도쿄올림픽(1964)을 비롯, 뮌헨(1972), 바르셀로나(1992), 시드니(2000)올림픽, 그리고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1962), 방콕(1970), 뉴델리(1982), 북경(1990), 히로시마(1994), 방콕(1998), 부산(2002)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2003)를 현장에서 직접 취재했다.

“1988년 퇴직한 후에는 그때그때 신문과 방송 등 각종 미디어의 프리랜서로 현장을 누볐습니다.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 특별히 작년에 베이징올림픽 취재도 가려고 잔뜩 벌렸는데 못 갔어요.”

— 아쉽게도 왜 못 가셨습니까.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한사코 말려서

“64년 도쿄올림픽때 북한 육상 중거리선수로 출전한 신금단과 남한의 부친 신문준 씨 간의 부녀 상봉이 도쿄 우에노(上野)의 조총련회관에서 이루어지던 현장을 한국일보 취재팀이 단독보도 하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취재팀장은 이용일부장, 장정호 사회부기자, 조용호기자 등이 취재팀이었습니

저는 장기자의 취재기사를 서울로 송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 특종 가운데는 신문사 퇴사후 92년 2월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 베츠다이(別大)마라톤(오히타~벳푸 왕복 마라톤)에서 황영조선수가 2시간8분47초의 기록을 세운 사실을 단독 취재했던 일입니다. 그 대회에서 황선수는 첫 출전으로 2등(1등은 멕시코선수)을 했지만 이 기록은 한국선수의

종전 10분대 벽을 깬 신기록일 뿐 아니라 세계 톱 클래스 기록이어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현장에 한국 체육기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서울의 일간스포츠에 전화로 알렸더니 체육팀장이 대뜸 ‘농담 마이소’ 하는

정 도 였 어 요 . KBS TV에서는 그날 울산 현장의 배구중계방송중 ‘황영조 한국마라톤 신기록 수립’ 자막을 내보냈어요.”

— 스포츠 관련 저술이 많은 시조.

“합성을 뒤로 하고 ‘이야기 한국체육사(3권)’ ‘극일의 햇불’ ‘순간의 힘을 모으자’ ‘레슬링 풍운록’ 등이 있습니다.”

— 상도 많이 받으셨지요.

“아시아권에서 처음 IOC(국제올림픽위원회)언론상을 받았습니다. 또 92년 아산체육상(상금3백만원)을 탔어요. 이때 받은 상금으로 그때까지 한 번도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지 못해 미안해 하던 차에 부부동반으로 벳푸(別府)로 갔는데 황 선수의 신기록수립을 특종보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밖에 자랑스런 고대인상과 성남인 상을 받은 정도입니다.”

— 요즘 자주 만나는 분들은 누구인지요.

“고대1회 졸업생 모임인 高一會 멤버들입니다. 김원기 전경제부총리(1924~2001)와 이중재 전국회의원(1925~2008)이 절친한 친구로 자주 어울렸는데 먼저 갔습니다. 김진웅(고대총장 역임)등이 현재 회원입니다. 스포츠언론인회(회장 박갑철)와 한국일보 체육부 OB모임 친구들도 있습니다.”

조 회우는 지난 2007년부터 서울 시흥3동에서 매주 이틀 2시간씩 가정주부와 직장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본어 강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도 한다.

후배 기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성실하게 취재하시라”는 짧막한 한 마디였다.

— 세계속의 한국체육의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는 10위권에 들만큼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의 하나는 육상경기력의 취약성입니다. 걷고 달리고 뛰고 던지는 육상경기는 학원스포츠로서 어렸을 때부터 장려해야 합니다. 이에대한 학교 관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조 회우는 지난 2월호 본보 12~13쪽에 게재한 ‘미니 회고록, 왜 체육기자였나’에서 “KBS에 입사했던 1949년부터 60년간, 6·25때의 5년과 한국일보에서의 관리직을 맡았던 2년간을 제외하면 매일을 스포츠행사를 뒤쫓던 인생이다. 길지 않은 생을 남겨놓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 일업(一業)에 종사하여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여기는 지금이다”라고 술회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딸, 아들 2남1녀와 손자 손녀 5명을 두고 있다. 3남매를 훌륭하게 키워 각각 대학교수와 연구원, 회사대표로 배출했다. [문]

황대연 회우 문집 ‘무차원의 존재’

회우들이 떠난 新刊

석암(石巖) 黃大淵 회우가 그의 일생동안 발표한 작품들을 모은 문집 ‘무차원(無次元)의 존재’를 펴냈다. 언론계에 봉직하면서 한편으로 문학인의 길을 걸었던 黃 회우는 희수(喜壽)를 기념하여 이 책을 내려 했으나 흩어져 있던 글들을 모으고, 장르별로 추리고, 발표순서대로 정리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등의 작업을 거치느라 1년여가 지난 지금에야 발간하게 되었다고 ‘뒷말’에서 밝히고 있다.

만 67세 까지 근 40년 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한 黃회우는 한편으로 문인의 꿈을 버리지 못해 간간히 글을 쓰다가 1959년 대중 문예지 ‘소설계’에 콩트 ‘입사 보증금’이 추천되었고 1962년에는 창작 ‘무차원의 존재’로 신인 예술상 소설부 수석상을 받았으며 1964년에 연속방송극 ‘살아 있는 낙엽’이 동양방송 개국기념 문예대상을 받는 등으로 문단과 방송극계에서 젊은 날의 꿈을 이루었고, 문제를 인정 받았다.

문집 ‘무차원의 존재’는 이러한 黃회우의 작품을 ‘창작’ ‘콩트’ ‘시’ ‘수필’의 장르로 나눠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창작’ 편에서는 ‘무차원의 존재’ 등 5편, ‘콩트’ 편에서는 데뷔작 ‘입사보증금’을 비롯하여 9편, ‘시’ 편에서는 ‘수초’ 등 10편, 그리고 ‘수필’ 편에서는 ‘기상-세태회평’ 등 36편을 실고 있다. 이 문집에는 최근에 쓴 글도 있으나 거의가 1960~1970년대에 쓴 글들이다. 그 시기는 黃회우가 신문기자로도 그렇고, 또 작가나 방송극작가로서도 왕성하게 글을 쓸 때 었다.

저자의 서문에 이은 아들 ‘황인환’ 씨가 쓴 ‘나의 아버지’는 2003년 5월 1일자 ‘대한언론인회보’ 제 206호에 실린 글이다.

www.konecs.or.kr

신문유통원의 정직한 약속!

최저 비용으로 양질의 배달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all prints all delivery

신문유통원(KONECS)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신문, 잡지는 물론,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일반기업의 각종 간행물, 사보, 홍보물 등 모든 인쇄물의 배달비용을 **최대 30%** 절감해 드리며, 빠른 배송과 양질의 배달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신문유통원에 배송을 맡기시면 **낙후지역 신문보급**과 **1만1천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보람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 3210 - 5700 사업팀 02) 3210 - 5717

신문유통원

아, 조세형... ‘조코’와의 열흘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어느 날, 윤설 위원 ‘조코’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참 설 치던 1976년 이맘 때로 ‘조코’는 저더 러 무조건 “타!” 하더니 미국 남부 조 지아 주를 향해 들입다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딜 가는 거요, 시방?” 저는 조금 불 이 메어 물었습니다.

‘조코’는 제가 몸담고 있던 한국일보 선배 조세형의 별명입니다. ‘왕초’ 장기 영의 총애를 받던 ‘조코’는 당시 워싱 턴 특파원을 막 마치고 귀국, 논설위원 으로 윤설(倫說)을 까던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그 읽기 싫고 쓰 기 싫은 ‘논설’이라는 말이 싫어 논 (論)자와 비슷하게 생긴 윤(倫)자를 붙 여, 논설위원을 지금도 ‘윤설위원’이라 부릅니다.

조코가 절 데리고 간 곳은 미국의 저 남쪽, 지미 카터의 고향인 조지아 주 플레인즈 라 는 땅콩 농장이었습니다. 조코 는 윤설을 까면서도 틈틈이 〈한반도와 지미카터〉라는 책을 출간, 당시 장안의 화제를 모 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조각명단에도 올라 박정희로부터 차기 외무장관 에 임명하겠노라는 언질까지 받았습시다만 이를 뿌리치고 다시 미국으로 출행랑, 지미 카터에 관한 두 번째 저서를 쓴답시고 취재 길에 오른 겁니 다. 그러니까 저더러는 취재 조연(助演)을 맡으라는 거지 요, 조코는 실컷 품 잡고 저는 그 옆에서 사진이나 찍어주는 것이 조연입니다.

지미 카터의 생가를 찾고, 카터를 익히 잘 알고 있는 조 지아 촌놈 열 댓 놈 만나 인터 뷰하고, 그때마다 저는 셔터 눌러대느라 고생하고... ‘조코 와의 열흘’이 그렇게 시작되었 습니다. 조코는 특출한 재능을 지닌 논객이었습니다. 그가 쓴 글은 다른 논객의 글과 달라 그의 필명이 들어있지 않은 글 임에도, 그의 글을 읽은 기자 들은 “아, 조코가 쓴 글이구나!”하고 대 번에 알아낼 수 있을 만큼, 독보적인 필 력과 필체를 가진 언론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앞서 한국일 보 편집국에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밤, 권혁승 편집국장이 그날 한국일보 1면 에 실린 칼럼 ‘메아리’를 읽고 남긴 코 멘트를 이상하게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대단한 필력이야...우선 글에 힘이 넘치는데다 스피디(speedy)해서 좋아. 거기예다 재미까지 넘치는 글이고...” 당시의 칼럼 ‘메아리’는 지금과는 달리 필명을 넣지 않았습시다만, 그 글을 읽 은 편집국장은 귀신이 귀신을 알아보듯 그게 바로 조코의 글임을 대번에 간파, 그런 평을 내린 것이지요.

조코는 한국일보 견습 기자 출신이 아닙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느냐면

한국 언론사(史)에 처음 견습기자 제 도를 도입, 그래서 “기자 사관학교”라 고까지 불리던 당 시의 한국일보 풍 토에서 비(非) 견 습출신 기자가 하 이라이트를 받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 이었기 때문입니 다. 조코는 사학자 겸 언론인 고(故) 천관우가 편집국장 으로 품을 잡던 민 국일보 출신으로, 민국일보가 폐간

추모기(上)



김승웅

- 본회 회우
- 전 시사저널(창간)편집국장
- 전 문화일보 워싱턴,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고(故) 조세형 한국일보 편집국장(오른쪽에서 두번 째)이 편집국 외신부쪽으로 다가와 김훈(작가로 변신/사 진 왼쪽), 김승웅(필자/왼쪽 두번 째), 고(故) 정달영 문화부장(왼쪽 네번째), 김해도 사회부장(오른쪽 끝)등 과 함께 지면 제작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제공>

筆名 없어도 알아볼 수 있는 특출한 文才 ‘왕초’ 장기영社主에 충성다한 스타 기자

된 후 조선일보 정치부기자를 거쳐, 한 국일보 창업주인 왕초 장기영에 의해 스카우트 되기 까지 경향신문에서 잠시 정치부장 겸 부국장을 역임한, (한국일 보 고유의 잣대로 잴 때) 한자 예트 랑제 기자에 불과 했습니다.

조코의 등장은 전적으로 ‘왕초’라 불 리던 한국일보 창업주 장기영의 덕입니 다. ‘왕초’는 한국 최초의 견습기자제도 를 실시한 장본인입니다만, 그 견습제 도가 뿌리를 내리기 까지는 스타 기자 채용을 혼용(混用), 뭔가 물건(!)이 되 겠다 싶은 기사를 찾아내는데 특출한 감식안(鑑識眼)을 가진 신문경영인이었 습니다. 거기에 일단 걸려만 들면 그 기 자는 막말로 ‘왕초’를 위해 죽는 기자 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

선비가 죽듯, ‘조 코’는 바로 자기를 발탁한 그 ‘왕초’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한 기자였습니 다. ‘왕초’ 없이 ‘조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결론입니다. 초창기 ‘왕초’의 주 요 일과는 어느 신 문, 어느 기자의 글 이 뛰어났는가...를 찾아내고, 그리고 일단 찾아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일보 캠프로 데 리고 오지 않는 한 잠을 못 이루는 인

면발치로만 알아 온 기라성 같은 인물 들이 편집국과 논설위원실을 짝 메운 걸 보고 저는 적이 놀랐습니다. 제가 더 욱 놀랜 건, 제가 전주서 중학을 다닐 때부터 고명(高名)을 들어온 전주출신 논객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 ‘왕 초’ 장기영의 진영아래 우르르 떴거리 로 몰려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왕초’ 의 포충망에 걸려 든 논객들은 ‘조코’ 조세형 말고도 논설위원실의 박권상(훗 날 동아일보 편집국장, 시사저널 주필 역임), 임방현(청와대 대변인 역임), 임 흥빈(‘문학과 사상’ 발행인) 등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이들은 1954년 한국일보 창간 후 정식 견습기자시험을 쳐 입사 한 최정호(견습 2기/훗날 연세대 교수 역임), 정경희(견습 8기/‘미디어 오늘’ 논객), 박실(견습 16기/훗날 국회의원, 국회사무총장 역임), 이충우(견습 19기 /훗날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역임) 등과 함께 한국일보 내 ‘전주출신’ 언론인의 전성 시대를 열고 있더라구요.

전주 출신 언론인 가운데서 도 ‘조코’는 돋보였습니다. ‘왕 초’의 신임이 다른 누구에 비 해 대단했구요. 아무튼 저를 옆 자리에 조수(助手)로 태우고 카터네 땅콩 농장을 돌던 그 무렵, 저는 ‘조코’에 대한 심문 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남긴 답변이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듣던대로 역시 신언서판입니다.

— 조 국장, ‘왕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요? (한 국일보에서는 위 선배를 부를 때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왕초’ 장기영을 부를 때도 “사 주!”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기자는 지금도 출입 처에 나가 “총리님!” “장관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니 백사람이 면 백사람 다 왕초를 욱한다 해 도, 나만은 ‘왕초’를 욱할 수 없어. 나를 오늘의 기자로 만든 사람이야!” 이번에는 제가 침묵 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 서른 셋, ‘조코’ 나이 마흔 다섯이었 습니다. 나이 마흔 다섯이면 지

금 생각하면 어리디 어린 나입니다만, 당시의 ‘조코’는 제게 왜 그리 어려운 존재였던지... 아마도 제 중학시절 담임 이시던 이춘영 선생님이 ‘조코’의 중고 교 동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담 임이 누구였던가를 알자마자 ‘조코’는 너 잘 걸렸다는 듯이 말을 파~악! 놓 는 겁니다.

“야, 김승웅이! 독자들 우습게 보면 안 돼. 설령 한국일보를 안 보는 독자들 일 망정 내가 한국일보에 쓰는 글은 열 심히 읽더라. 독자의 수준은 한마디로 그런 거야. 그걸 잊어서는 안 돼. 기자 하려면 현명해야 돼! 너 내 말 무슨 말 인가 알겠냐?” 내 이럴 줄 알았지... 담 임 이야기를 죽어도 해서는 안 되는 건 데, 차는 조지아 주를 벗어나 텍사스 주 경(州境)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㉞

재 발탁에 관한 한 당대 언론계의 최고 ‘콜렉터’였습니다.

출중한 기자가 많이 포진해 있는 신 문이면 성공합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필수적이고 당연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부류의 사 람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자경험이 전혀 없는, 회장 또는 사장으로 불리는 신문 경영인들입니다. 신문을 비즈니스 의 연장으로만 보기 때문이지요. 신문 도 엄밀히는 비즈니스입니다. 허나 다 른 비즈니스와 달리 인간의 혼을 건들 고, 침몰시키고, 때로는 발짝 세우는 영 성(靈性)을 지닌 비즈니스라는 점을 놓 치기 쉽습니다.

다시 ‘조코’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1969년 정초, 한국일보 기자로 첫 출근 을 해 보니 학창시절 인쇄물을 통해서

祖上은 自己과시 專有존재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과 이름을 갖고 있다. 성은 선조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이고 이름은 지어서 부른다. 또 성 앞에는 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다.

성이 시작된 최초의 조상을 시조라 하고 시조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적립해 기록한 것이 족보다. 성이 시작된 시조(始祖)는 반드시 남자이고 부(父)계 혈통으로만 이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민법과 호적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2천여 년을 이어온 성씨 체계의 전통이 무너질 처지에 놓여 자못 혼란스럽다.

성은 나라에서 내린 사성(賜姓), 본인이 만들어 자손들에게 쓰게 한 창성(創姓), 외국에서 건너와 정착하게 된 귀화성(歸化姓)의 세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본(本)은 본관(本貫), 관향(貫鄉), 관적(貫籍) 등으로 당초 성을 쓰게된 시조(始祖)의 거주지, 연고지, 정착지 등의 지명을 일컫는 것이다. 혹 씨관(氏貫), 선향(先鄉)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는다. 이는 혈통이 같은 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가 성을 쓰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가 건국초기인 1세기, 백제는 4세기(近肖古王때), 신라는 6세기(眞興王때)가 아닌가 추측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이 나라를 세워 국호를 고구려라 하면서 성을 고씨(高氏)라 하고 동시에 신하 3명에게 국(克) 중실(仲室) 소실(小室)씨를 사성했다. 또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씨(扶餘氏)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는 박(朴) 석(昔) 김(金) 왕족 3성과 유리왕(儒理王) 때 사성한 6부촌의 경주를 본으로 한 이(李) 최(崔) 손(孫) 정(鄭) 배(裴) 설(薛)씨 등이 있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首露王)은 황금알에서 태어났다 하여 김씨(金氏)라 했는데 이들은 거의 전설적 기록이 많다. 한편 김해김씨 고보왕세계(古譜王世系)는 수로왕의 왕후 허씨(許氏)는 인도에서 왔는데 10왕자와 2공주를 낳았고 이중 둘째 거칠(居漆), 셋째 선현(仙見)은 왕후의 성을 따라 허씨로 사성했다고 한다. 이 기록이 유일하게 모(母)계를 따른 성씨가 아닌가 한다. 하지만 혈통은 거칠, 선현으로 부계를 이었다.

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역사서의 기록을 보면 고대 부족사회 때부터 성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중국문화가 유입되면서 지어낸 것으로 여겨진다.

성을 가질 때 대개 왕실의 성을 따랐다. 고구려의 고(高), 백제의 여(餘), 신라의 김(金)씨가 가장 많았던 것도 이를 증명한다. 그 밖의 성을 가진 수효는 많지 않다.

고구려는 을(乙) 을지(乙支) 예(禮) 우(于) 연(淵) 등 약 20종, 백제는 진(眞) 해(解) 백(芭) 연(燕) 협(劔) 등 20여종이 기록으로 전하지만 대부분 자

취를 감쳤다. 우리나라의 성은 신라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하지만 왕족과 귀족계급의 일부에서 사용할 정도였다.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 때 세워진 순수비(巡狩碑)가 이를 밝히고 있다. 왕이 순행하여 민정을 살피고 산에 올라 산천에 제사한 뒤 각석(刻石)을 세워 덕을 찬양케 하는 순수비는 서울 북한산(北漢山) 경남 창녕(昌寧) 함남 황초령(黃草嶺)과 마운령(摩雲嶺)에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수행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대부분 출생지와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다. 왕을 수행할 정도면 분명 고위직 귀족임에 틀림없는데 이들도 성을 갖지 않았다. 지금의 본관이라 할 수 있는 출신지만 기록해 지위와 성분을 나타냈다.

신라때 골품제(骨品制)를 엄격히 시행, 성골(聖骨) : 부모 모두 왕족) 진골(眞骨) : 부모중 한쪽이 왕족)이 고위직을 독점했고 육두품(六頭品) 중 6~4두품까지는 관직을 가질 수 있으며 지배

舊韓末까지 국민 30% 이상이 姓氏없어 血統 美化보다 올바른 뿌리 정립이 중요

계층에 속했지만 3~1두품은 기록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성골, 진골과 일부 특수층만이 성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중국을 왕래한 인물들은 모두 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김인문(金仁問), 김지량(金志良), 최치원(崔致遠), 박계업(朴季業), 장보고(張保皋) 등이다. 이는 당(唐)나라 영향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삼국시대를 지나면서도 성은 일반화되지 않았다.

고려에 이르러 성은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태조 왕건(王建)이 고려를 개국한 뒤 공신들에게 사성을 했는데 홍유(洪儒), 배현경(裴玄慶), 신송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등이다. 이들은 원래 성이 없었다가 부계홍씨(缶溪 또는 義城洪氏), 경주배씨(慶州裴氏), 평산신씨(平山申氏), 면천복씨(沔川卜氏)의 시조가 됐다. 김행(金幸)이 왕건을 보필한 공으로 안동권씨(安東權氏) 시조가 되는 등 성을 여러명 하사 받았지만 역시 특수계층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려가 개국한 뒤 공신들에 의한 무신(武臣) 정치가 이어지다 왕건태조의 셋째 아들로 왕위에 오른 제4대 광종(光宗)에 이르러 권신 부호의 세도를 누르고 널리 인재를 발굴해 문치(文治)

우리나라 姓氏의 변천과정



김양섭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 한국씨족문화연구소장

를 펴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했다. 이무렵 후주(後周)의 사신을 수행해 왔다가 병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귀화한 쌍기(雙冀)가 과거제(科擧制)를 건의했다.

광종은 이의 주청을 받아들여 지방 호족들의 지식 등 널리 인재를 뽑아 중앙으로 끌어 들였다. 과거제가 자리를 잡아갔고 제5대 경종(景宗)을 거치면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들의 출신 성분을 파악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에 따라 과거제도가 보완, 강화되면서 응시자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고조(高祖)까지의 성과 이름을 적어 내도록 했다.

이로써 과거에 응시하려면 누구나 고조까지의 성명을 적어내야 했다. 이때부터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가문이 성을 만드는 창성(創姓)은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게 됐다. 많은 성씨의 시조가 지방 호족의 우두머리인 호장(戶長)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 중엽부터 성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역시 벼슬을 하려는 양반 귀

이 부리는 노비 하인 등 천민층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고려말과 임진왜란 직후 강력하게 호적법을 시행했지만 상류층의 반발과 비협조로 실패했다. 그러니 천민층은 성은커녕 소전종파(所傳宗派)까지 모르는 무국적자들이었다. 여기에 부정까지 겹쳐 관호(官戶) : 관에 정식으로 등재된 호적), 은호(隱戶) : 숨긴 호적)라는 명칭까지 생기게 됐다.

이같은 씨족역사의 흐름속에 구한말까지 천민층은 성을 갖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1896년 호구조사규칙 급 세칙(戶口調査規則及細則)이 제정되면서 성을 갖는 수효가 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역시 성을 갖지 못했다.

이 사무는 서울에서는 통주(統主) 지방은 이동장(里洞長)이 맡아 조사해 계통을 따라 상부에 보고했었다. 이후 일본이 한일합방(1910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을 장악하기 위해 1908년 이 사무를 경찰관서에 넘기도록 했고 이듬해 민적법(民籍法)이 제정되면서 일제히 호적을 정비했다. 여기서 성이 없는 노비와 천민들에게 모두 본관과 성을 갖게 했다.

당시 성을 갖지 않은 국민이 30%를 넘을 정도였는데 일제경찰이 강압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성을 갖게 함으로써 성없는 사람이 없게 됐다. 이들은 인구가 많은 김 이 박 등 10여개 대성에 주로 편입됐고 일부는 성을 만들기도 했는데 1922년 조선호적령(朝鮮戶籍令)이 반포되면서 많이 정비됐지만 반면에 대성으로 몰리는 사태를 빚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성을 가졌다. 성의 수를 살펴보면

한문의 동일 글자로(본관은 별도)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277성으로 돼 있는데 고종 때 발간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86성이 수록돼 있다. 문헌비고의 자료는 고문헌에 있는 모든 성을 넣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부터 인구 및 주택조사를 시작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차례 시행했다. 이중 성 본관을 조사한 1930년 인구센서스에 250성, 1960년 258성, 1975년 249성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85년에 275성으로 약간 늘어났다가 2000년 조사에서는 무려 728성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한글 성씨도 많았는데 이는 국제결혼 등 인종 세계화 추세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의 성(姓) 앞에는 반드시 본관(本貫)이 붙어 있다. 의성(義城) : 본관), 김씨(金氏 : 성씨)가 그런 예이다. 본관은 관향(貫鄉) 관적(貫籍) 씨관(氏貫) 선향(先鄉)이라 부르며 시조의 연고지, 출생지, 성씨의 정착지를 나타낸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었다.

본관은 성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삼국시대에서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

17면으로 이어집니다.

國葬과 言論人葬

趙昌化

· 대한언론인회장

모든 회원들은 자기가 죽은 후 언론인장으로 예우되는 것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유족들이 훌륭한 부모를 모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야기는 지난 4월 23일 작고하신

부르기도 했다.

그의 부음이 전해 진 것은 지난 4월 23일 아침이었다. 아드님의 차

분한 목소리는 그날 새벽 운명하신 전 회우를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13호에 모셨고 발인은 3일 후라는 것이었다. 오건환 총무이사과 함께 서둘러 병원

자신을 낮추는게 더 높이는 일인데...

全仲烈 회우의 경우이다. 전회우는 수도권권의 한 작은 신문에서 기자,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거쳐 퇴임할때까지 언론 한길만을 걸어온 모범적인 언론인이다.

대부분의 언론인이 그렇듯이 그도 책임에 철저하고 성실하며 그러나 가난을 유산으로 남겼다. 주변에서는 그를 가리켜 ‘보증수표’라는 별명으로

에 도착해보니 썰렁한 빈소에는 유족 몇분이 보일뿐 쓸쓸한 분위기였다. 상주를 찾아 언론인장 집행에 관해 상의를 했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 왔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언론인으로서 별로 해 놓은 것도 없는 내가 언론인장을 받을 수가 없다.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언론인회의 배려는 감사하지만 언론인

장은 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필자는 지난 8월 하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은 국장을 지켜 보면서 언론인장을 정중히 사양한 고 전종열 회우를 자주 연상하게 된다. 언감생심 언론인장을 국장과 대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받아야할 예우를 사양한 한 언론인과 전례에 따라 국민장이 보장된 나라의 한 지도자가 그것으로는 부족하니 국장으로 격상해 달라고 하여 국장을 치르게한 사례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동작동 국립묘지에는 전직 국가원수의 묘터가 짝 차버렸는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묻혀야만 되겠다는 사람과 내가 죽은 후 나를 화장하여 그 가루를 나의 조국산하에 뿌려달라고 한 주은래나 등소평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잘 난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나쁠 것이야 없겠지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결산을 겸허하게 낮추는 것이 자기를 더 높인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를까. [7]

16면에서 이어집니다.

순수비에서 지적 했듯이 신라의 귀족 계급도 성은 없었지만 출생지, 즉 본관만은 써 왔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일부 상층계급이 사용하기 시작해 점차 하층계급까지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성의 종류가 적어 성만 가지고는 동족(同族)을 구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동족을 나타내기 위해 조상의 출생지나 집성촌(集姓村)을 밝혀 같은 일족임을 표시한 것이다.

본관은 신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바로 신라 이후 군현제도(郡縣制度)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군현(郡縣) 이상의 고을에 사는 사람은 양민(良民), 그 이하인 향(鄕) 부곡(部曲) 소(所) 처(處) 역(驛) 섬(島) 등의 주민은 천민(賤民)으로 규정했다. 이는 거주지에 따라 신분을 엄격히 구별한 것이다. 그 거주지가 본관의 기원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결과가 됐다.

이로인해 본관은 신분의 척도로 동족의 성과 연결된 것이다. 군 현과 향 부곡 등도 역시 혈연적(血緣的) 집단의 거주지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본관은 동족의 혈연적 집단의 신분을 표시하는 제도로 작용했다. 후에 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본으로 삼았고 고려말기 천민해방과 때를 같이해 혈연적 성을 뿌렸이 구별하기 위하여 본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조선조 말기까지 백성이나 노비 등 천민은 본관은 물론 성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민적법 호적령의 제도를 거치면서 누구나 성을 갖게 됐다. 새로 성을 갖게 된 이들은 대부분 대성이나 그 지역의 많은 성을 쫓아 쓰게 됐고 양반 성씨의 본관을 본뜨게 된 것이다. 이것이 현재 누구나 성과 본관을 갖게 된 결과이며 그 역사는 불과 1백년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센서스는 1930년부터 시작했지만 한글 성씨를 썼거나 또는 본관이 없어 집계 불투명 했었다. 그러다 1985년 전 인구를 대상으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본관이 무려 3299본(지역이

유사한 본관 90본 포함)이나 됐고 2000년에는 4179본으로 15년만에 다시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 전에는 1천여 본관이 있었다고 전한다.

성과 본관이 있으니 이를 기록하기 위한 세계(世系)가 필요했다. 이 기록을 통칭해 족보(族譜)라 한다. 족보는 한 종족(宗族)의 계보(系譜)로써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가승(家乘) 가첩(家牒) 가보(家譜) 성보(姓譜)라고도 하며 종족이 늘어남에 따라 대동보(大同譜)와 그 아래 지파(支派)의 파보(派譜)가 있다.

족보는 부계(父系)를 중심으로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책이다. 조상을 숭상하고 종족의 단결을 뜻하며 후손들에게 촌수의 멀고 가까움 없이 혈족 간에 화목을 도모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족보는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다. 후한(後漢)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 관족(冠族)이 형성돼 문벌과 가풍을 존중하는 사상이 높아졌으며 육조(六朝)시대에 이르러 가문의 족보를 만들면서 보학(譜學)이 발달하게 됐다.

우리나라 족보의 시발은 고려 중엽부터다. 과거제도의 시행과 함께 응시자에게 고조(高祖)까지의 성명을 제출케 함으로써 뿌리를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가첩 가승 등으로 자기의 조상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이는 과거에 응시할 목적이 있는 대상자에게 국한됐다.

옛 역사에 산아제한을 했다는 기록은 본적이 없다. 임신을 하면 아들이고 딸이건 열이고 스물이면 낳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족보를 보면 고려 중말엽 이전의 선조들은 독자이거나 고작해야 형제가 2~3명에 불과했다. 대부분 그 후 자손들이 번창해 온 것처럼 기록한 것이 대다수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를 보기 위해 기록해 오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보학이 유입되면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점차 족보는 씨족 권위의 상징으로

존비(尊卑) 항렬(行列) 적서(嫡庶)의 구별을 명백히 하게 됐다. 특히 중국 송배사상과 함께 자신의 씨족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중국 고대의 위인을 먼 조상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것들이 적지 않다. 그뿐 아니라 명문 세도의 가문에 슬그머니 연결시켜 놓는 경우도 허다해 졌다. 후세에 이르러 이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가첩은 자기 일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취초록(拔萃抄錄)한 세계표(世系表)이고 가승은 계표에 선조의 전설 사적 등을 첨가한 것이다. 고려의 양반 귀족들은 그 씨족계보(氏族系譜)를 중요시하므로 나라에서는 종부시(宗簿寺)를 시켜 족속보첩(族屬譜牒)을 관장케 하도록 했다고 고려사(高麗史)가 전한다.

하지만 족보가 체계를 갖춰 간행되기 시작한 것은 1500년대 후반부터다. 최초의 족보는 1476년 간행된 안동권씨(安東權氏) 성화보(成化譜)로 서문(序文)이 전하며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1562년 문화유씨(文化柳氏) 가정보(嘉靖譜)가 최초라 하나 성화보 보다 80여년 뒤이고 전해지지도 않는다. 이를 신호탄으로 씨족별 가문마다 앞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족보가 간행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비교적 전거(典據)와 고증자료에 의해 제작하는데 충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자료가 부실하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다 후세들이 늘어남에 따라 보완과 추가수록을 위한 증보판 간행이 절실해 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뒤따랐다. ‘붓끝으로 조상을 만든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조상의 내력을 미화하고 중국 위인의 후손, 또는 고대 인물을 선조로 조작하는 사태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어차피 족보는 자손들의 팽창에 따라 일정기간을 주기로 증보판 간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가 지날수록 위작 조작 및 부정적인 입록의 정도가 심해졌다. 명문가

가문의 시조를 자신들의 시조로 만들기도 하고 무후(無後 : 자손이 없음)의 이름 아래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를 그럴듯하게 이어 놓고 행세하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런 일들은 족보를 제작하는 가문에 재물을 주고 쌍방 묵인 하에 슬그머니 이름을 수록하는 경우로 이를 투탁(投託)이라 하며 아예 자신들 일족의 족보(派譜 : 소규모 족보)를 가짜로 만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그 가문을 찾아 생떼를 쓰는 경우 등도 있다. 이같은 행태는 18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대 초반기에 이르러 극치에 달했다. 심지어 자신들만 갖고 있는 가짜 족보를 만들어 주는 족보사기꾼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제 봉건주의(封建主義) 시대는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훌륭한 조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해서 돋보이거나 출세의 길이 열리는 시기는 지났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global)시대를 외치고 있다. 조상을 내세워 자신을 과시할 수도, 영달할 수도 없으며 또한 조상이 그런 전유(專有)의 존재도 아니다.

1985, 2000년 두 번의 국제 전수조사에서 인종도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역사적으로도 귀화의 성씨가 많았던 것을 보면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위에서 성의 역사와 본관 및 족보에 대해 살펴봤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다. 내가 있게 한 조상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추모하는 진실된 혈통의식보다 일부이긴 할지라도 영화와 과시욕에서 서슴없이 계통을 조작하는 누를 범한 부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로인해 정작 지켜야할 고귀한 숭조사상(崇祖思想)은 뒷전이고 가식과 허식이 판치는 족벌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훌륭한 조상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노력하면 앞날은 열려 있다. 그렇다고 선조에 대한 정신을 망각 하라는 것은 아니다. 조상을 미화하기보다 거짓없고 올바른 뿌리의 정립으로 진실된 사실을 후대에 물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8]

政治판 - 녹슬은 슬픈 回轉木馬

정치는 드라마다. 드라마는 가슴속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다. 드라마 성공 열쇠는 감동의 진폭(振幅)에 달렸다. 감동의 나들목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메마른 드라마는 이미 드라마가 아니다. 여기에 보태야 할 요긴한 참맛은 재미의 완성도다.

백성의 가슴 밑바닥에 늘 축축이 샘물이 고이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진면목일게다.

한데 여야 정치권에서 연출하고 있는 오늘의 드라마에서 감동은커녕 알량한 재미의 흔적 찾기도 어렵없는 욕망이다. 덩치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쭈잡은 몸짓도 그렇거니와 품관(品冠)에도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언사들은 딱히 설익은 푸닥거리 풍경이다.

집권 한나라당은 귀뚜라미 풍류(風流)에 젖은 탓인지 허구한날 다 팽개치고 하필이면 손님맞이도 짜증스런 복중(伏中) 휴가철에 민생달래기 행보다. 속이 들여다 보인다.

거리투쟁에 나선 야당에 맞선 맞불심술이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된 미디어법 무효투쟁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있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전가의 보도를 뽐아들었으니 벼랑끝 전술이다.

흔하게 써먹은 터에 칼날이 꽤나 무디어졌고 약발도 신통찮은 눈치다. 찔통 삼복의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신작도로 쏟아져 나온 야권(野圈)의 야심(野心)찬 야전(野戰)열기는 그리 뜨겁지도 맵지도 않다. 삶에 쫓기는 민초들의 고단한 심기가 드리워진 흔적이다. 야당 전략가들의 계산은 아마도 이랬을 거다. 전직대통령의 비극적인 투신 이후 '노무현 바람'을 타고 기사화생, 희망을 껴찬 이른바 '노풍명월'(盧風明月)의 효과가 미디어법 후폭풍으로 확대 재생산 될 것으로 보았을까?

게다가 '권력에 아부하지 말고 들고 일어나라'고 한 DJ(김대중)의 훈수과장까지 실려있는 마당에 한번 호되게 밀

어붙여 또 하나의 '대박'을 셈했을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정신적 본향(本鄉)인 광주집회가 정신적 투자만큼의 창대(昌大)함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는 투쟁의 불씨를 흔들리게 했다.

장마의 유난한 심통까지 겹친 올7~8월은 이래저래 너무 더웠다. 계절의 조화는 하늘의 몫인 것을. 하나 콩잎에 '노오란 무늬'가 슬그머니 걸터앉았으니 내일이면 벌써 9월이다. 어떤 시간인가. 정기국회가 열린다. 나라살림의 뿌리와 줄기를 좌지우지하는 큰 장이 선다. 국정의 알목을 투시하는 국정감사장이 후끈 달아오를 것이다. 더더욱 야당

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풍성한 '사냥의 계절'이 아니던가. 진퇴양난이다. 야당이 빠진 반쪽 국회는 여당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노릇인 것만은 불문가지다. 여야의 속앓이가 접점을 찾게 되면 협상이란 이름의 이골 난 판박이 드라마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18대는 초장부터 소수당의 '난맥'(亂脈)이 판을 휘어잡은 국회다. '알성급제'만큼이나 귀한 금배지다. 국회 문턱을 밟는데도 주고받는 흥정이 필요한가. 정치가 제대로 움직이는 나라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희한한 풍속도다. 미 국산 쇠고기 재협상 시비, 한미FTA 비

政治隨想



정재호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정치부장 논설위원
- 현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

준안 상정, 미디어 법처리 등 맞설 때마다 최악의 난장판이 연출됐다. 쟁점 법안은 상정부터 원천봉쇄 됐고 다수결이란 존재한다는 사실의 장식용어에 불과했다. 순리(順理)는 무리(無理)에 밀려 자리 잡을 틈이 없다. 회의장은 왈각하는 감정에 치우쳐 반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정동주의(情動主義)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내몰렸다. 걸핏하면 실행사문운하며 으

르렁거린다.

국회 안에서 '실력'이란 어떤 의미인가? 여당은 일방적 표결 처리쪽이요 야당은 몸으로 부딪치겠다는 생각이니 폭력으로 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본디

날렸을까. 전경련회장 조석래가 제주도의 한 공식모임에서 내놓고 토로한 발언요점을 보자. "오늘날 우리 정치상황을 보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보다는 문제를 만든다." "국회는 제 할 일을 못하고 연일 싸움질만하고 정치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강성노조만이 마치 나라의 주인인양 판을 치고 있다."

구구절절 과녁의 한가운데를 제대로 찌른 말이다. 생각한다. '97년 삼성회장 이근희의 베이징 발언은 일찍이 고전(古典)에 오른 명언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의 기업은 2류, 정부는 3류, 정치는 4류에 머물고 있다" 변화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향한 쓴 소리였다. 당시 문민제국(帝國)의 대통령 YS(김영삼)과 청와대 세도가들을 분노케한 이 말은 삼성도 2류에 머물고 있음을 고백한 CEO의 치열한 자기성찰로 의미부여됐다. 권력의 눈총이 쏠렸음은 불문가지다.

그로부터 14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으로 잇는 4명의 대통령이 부침했다.

흔한 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다. 2류의 삼성은 세계 속의 초일류를 굳혔다. 과연 한국정치의 현주소는 몇류일까?

오늘 국내 유수한 기업 집단의 성장사는 각고의 잔해들로 채워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권력과의 끊임없는 '은밀한 전쟁'이 있었다. 좌파정권과 그 잔심부름꾼들이 불붙인 반기업정서에 몸서리나게 시달렸다.

오늘날 정부기관들은 민간 기업이 스승이라며 뒤늦게 기업배우기에 나서고 있다. 불품없는 드라마에 열중하는 정치권은 여전히 낡은 쳇바퀴를 돌리고 있다.

콩·보리를 가리지 못하는 숙맥(菽麥)의 텃밭에 파랑새는 날아오지 않는 법. 오늘도 이 땅의 정치 드라마는 녹슬은 슬픈 회전목마를 타고 덜커덩 덜커덩 돌고 있다. [W]

난장판 菽麥의 텃밭에 파랑새는 언제...

부터 웅골차게 결박돼있음이 아닌가.

오늘의 정치드라마 현장에는 백 번 천 번을 추방해야 마땅한 후진성 단어들 활개친다.

육설, 농성, 단식, 삭발, 단상점거, 결사저지, 강행처리, 사회봉쟁취, 회의참석 거부, 경위권 발동 따위. 하나같이 물리적 폭력성을 함축하고 있다. 마침내 전기톱, 쇠망치, 소방용 분사기 등이 동원되는 섬뜩한 액션으로 번졌다. 하늘아래 돌도 없는 막가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권력의 눈치 살피기에 길들여진 재계가 겁도 없이 작심 직격탄을

이제 그만!

뉴스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복사·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뉴스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뉴스 전재 및 링크
-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여 복사 배포
- 사내 게시판에 뉴스를 배포하거나 링크
- e-mail 등을 통한 뉴스 배포
- 전문직업 이용 목적으로 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를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사용할 경우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최초, 국내최대 종합 뉴스 서비스
news korea

www.newskorea.or.kr

아직도 뉴스를 몰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처절한 代價치른 美女 욕망

— 영화 「요가학원」을 보고

윤익한 화우가 딸이 감독한 공포영화 '요가학원' 초대시사회에 초청했다. 8월 11일 서울 용산역 역사 백화점 7층에 있는 CGV극장에서 영화 '요가학원'을 관람했다. 영화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우선 재능 있는 딸을 둔 자랑스런 아버지 윤익한 화우에게 축하를 보낸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영화감독이다". 더욱이 남자도 연출작업이 힘들다는데 여자의 몸으로 영화감독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영화감독은 예술적인 재능과 감성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력과 담력과 현장통솔력이 필요하다. 영화 촬영현장에서 감독은 절대군주다. 종합 예술인 영화는 다양한 기능이 한 데 어울려 한 편의 작품을 탄생시킨다.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연출부, 촬영부, 조명부, 미술부, 소품부, 제작부, 의상부, 헤어디자이너, 심지어는 식당까지 따라다닌다. 촬영현장에서 이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감독이다. 요즘은 자제되고 있다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밤 촬영도 강행해야 한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밤 촬영이 다반사였다. 오죽했으면 영화배우협회에서 그 때 밤 촬영금지결의까지 했겠는가.

영화촬영 현장의 이런 독특한 아우라 때문에 남녀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영화감독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영화촬영 현장의 이런 독특한 아우라 때문에 남녀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영화감독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요즘은 대학 영화과에 연출지망 여대생이 많고, 현역감독으로 활동 중인 여자감독들도 열 손가락을 꼽을 만큼 늘었지만 1950년대와 60년대에 여자감독은 희귀동물 취급을 받았다.

다. 한국 최초의 여자감독은 1955년 12월 10일 서울 중앙극장에서 '미망인'을 개봉한 박남옥이다. 박 감독은 생후 6개월 된 딸을 등에 업고 레디고를 외쳤다. 그 후 1962년 홍은원이 '여판사'로, 1965년 최은희가 '민며느리'로, 1970년 황혜미가 '첫경험'으로, 1984년 이미례가 '수렁에서 건진 내 딸'로, 1996년 변영주의 '낮은 목소리'와 임순례의 '세 친구'로,



김 화

· 본회 논설위원
· 영화 평론가

가는 젊은이들은 권태로운 일상에서 과감한 탈출을 기도하고, 성공에 도전한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이고, 신분상승을 위한 성공은 삶의 목표이다.

'요가학원'의 주인공 효정(유진)도 미모와 성공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여자다. 그 욕망은 자연스런 내부 분출일 수도 있지만 그녀를 둘러싼 직장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압박한

수련을 받으면서 한 사람씩 기이한 사건에 휘말려 들며 고통 속에 생사를 헤맨다. 가까스로 효정 혼자 탈출한다.

미모와 성공에 대한 여자들의 욕망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좌절되는가를 암시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맹목적인 성공신화에 대한 문명비판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영화의 메시지 전달을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 의존하지 않고 그로테스크한 청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했는지 영화는 전편에 걸쳐 날카로운 비명이 지배한다. 완벽한 스토리 구성으로 영화적 재미를 만끽하는 관객에게는 생소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스토리 연결의 당위성 보다는 청각적인 발생과 뱀이 사람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그로테스크한 표현으로 감독이 의도한 철학적인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로테스크한 표현은 단편으로 끝나버려 철학적인 메시지로 효과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아쉬움을 느꼈다. 몇 가지 아쉬움을 뒤로 제친다면 이 영화는 많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성 영화문법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문법에 도전하는 신인 감독다운 패기다. 기성문법을 모방하고 기성감독의 흥행요소만을 베낀다면 감독으로서의 성장은 멈춘다.

그리고 영상 (영화언어)이 산뜻하고 깔끔해서 신제품 패션을 처음 대한 기분이다. 또 내가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흥행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영화 속에 작가의 창의성과 작가정신을 살리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는 점이다. [4]

신인 女감독의 새로운 文法 도전

1998년 이정향은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2002년은 이미연의 '버스 정류장'과 모지은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로 여류감독의 맥을 끈기있게 이어오면서 윤재연에 이르고 있다.

윤 감독은 '요가학원' 상영에 앞 선 출연 여배우와 함께한 무대인사에서 "이 영화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노출되었는데 좋은 점만 봐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좋은 점만 쓰기로 했다. '요가학원'은 '여고괴담 3'에 이은 윤재연 감독의 두 번째 작품이다. 앞길에 유망한 신인 감독이다. 시사회를 마치고 극장을 나오면서 마침 이번에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 총장 발령을 받은 박종원 감독을 만났다.

박 감독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영원한 제국' 등을 연출했는데 그 동안 서예종 영화과 교수였는데 윤 감독이 제자라고 했다. 박 총장은 "재학 중에도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었다"면서 "앞으로 재능이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윤 감독에게 따끔한 질책보다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다.

영화 '요가학원'의 장르는 공포다. 데뷔작인 '여고괴담 3'도 공포영화인 것으로 보아서 윤 감독은 멜로 같은 보편적인 영화보다 자극적인 장르를 선호하는 것 같다.

공포영화는 단순한 괴기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심리를 좀 더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하고 여기에 철학적인 메시지의 탐구도 곁들일 수 있다. 오늘을 살아

다. 흡쇼킹 간판 호스트였던 그녀는 나이가 들고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젊고 매력적인 후배에게 밀리기 시작한다. 공동 진행한 프로에서 카메라는 젊은 후배에게 집중되고 중요한 코멘트도 후배 몫이다. 골든아워에서 밀리고 자신의 존재는 갈수록 희미해진다. 오늘의 직장인 자화상이다.

점차 자신의 매력에 대해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직장생활도 힘들어만 가는데 우연히 달라진 모습의 여고 동창생을 만난다. 그 동창생은 여고시절 못생겼다고 멸시의 대상이었는데 몰라보게 완벽한 미인이 되어 있었다. 그 비결은 요가학원에서 실시하는 비밀스런 심화훈련, 절대미를 갖기 위해 요가학원을 찾은 5명의 여자들은

미디어法 거짓선동 이젠 그만 뉘야

‘조중동 TV’ ‘뽕박 뉴스 등장’

민주당이 삼복더위에 전국을 돌며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을 벌이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 선전 선동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싸움을 위해 30년 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약자 이미지로 자신을 위장하고, 그 시절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켰던 '뽕전 뉴스' 슬로건을 되살려내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은 조선 동아 중앙일보와 대기업이 MBC를 포함한 지상파 채널을 집어삼키고, 여론을 독점하며, 이명박 정권을 침식하는 '뽕박 뉴스'에 혈안이 되고, 지역언론을 고사시킨다는 것이다. 자체 홍보물을 통해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반민주 반서민 반통일 수구언론'이라고 얼토당토않게 낙인 찍고는 "이들이 방송사를 소유하면 평소

버릇대로 왜곡 조작 보도는 일상사"일 것이라며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미디어법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위한 장외투쟁용 홍보 캠페인에 불과한 것이다.

"MBC 등 지상파가 조선 중앙 동아와 재벌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미디어법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를 사실상 봉쇄했다. 경영 참여가 2012년 까지 금지된 데다 MBC와 KBS2를 민영화하지 않는 한 누구든 지분을 단 1%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그간 "MBC와 KBS2의 인위적 민영화는 절대 없다"고 강조해 왔다. 미디어법은 신



천상기

· 본회 회우
· 경기대 초빙교수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클럽 고문

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참여 한도는 10%로 묶어놓고, 기존 대주주를 포함한 1인 소유한도는 30%에서 40%로 높여줬다.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설사 참여의 길이 열린다 해도 10%로는 방송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앞으로 신문이 여론을 짚을 것이다"도 거짓말이다. 여론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KBS MBC SBS 지상파 3사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포함한 전체 여론시장에서 3사의 여론지배력은 작년 한국언론재단 조사에서 57%, 올해 서울대 윤석민 교수 조사에서 68.8%에 이르렀다. 3대 신

문의 영향력은 언론재단 조사에서 8.2%, 윤교수 조사에선 4~20%였다. 방송3사의 시장점유율은 81.8%나 된다.

미디어법의 목적은 이런 지상파 독점구조를 완화해 여론 시장을 다양화하고 시청자 채널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당부터가 야당 등의 '메이저신문 재벌 독점론'에 휘둘리면서 현재의 미디어법은 지상파 3사의 독점기득권을 굳혀주는 법이 됐다.

세 번째 거짓말은 이제부터는 시청자가 '뽕박 뉴스'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늘날의 시청자를 판단력 없는 바보로 취급하는 발상이다. 케이블 종합편성, 보도채널이 새로 생겨나 뉴스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마당에 정권 찬양방송을 틀어댔다간 철저히 외면당해 퇴출되고 말 것이 뻔하다.

20면으로 이어집니다.

수필

好食長生

한종달이 사표를 낸 것은 어제 수요일. 다음 주치 주간지가 나온 날이었다. 그가 취재부장을 맡고 있던 그 주간지의 제호는 <미인계>였다. 물론 한문으로 쓰면 ‘美人計’가 아니라 ‘美人界’였지만 어느 쪽이든 웃기는 제호라는 사실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종달이 그 회사에 입사한 것은 재작년이었다. 그 전에는 한 일간지 중견기자로 있었다. 그러다가 경영 여건이 악화한 신문사가 자구책으로 명예퇴직제를 시행하자 사표를 내고 나왔던 것이다. 아직도 십여 년은 더 일선에서 뛸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너무나 무리를 한 탓에 건강이 감당을 못 했던 것이다.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백수가 되었는데 마음 편히 산천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재정비할 형편도 못 되었다. 이태가 못 가서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생활비도 그렇지만 당장 아이들 학자금 문제였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떤 선배의 소개를 받아 문제의 주간 <미인계>에 취재부장으로 입사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색이 주간지도 언론이요, 언론이라면 사회의 목탁 구실을 해야 옳거늘 매주 펴내는 주간 <미인계>의 내용은 거의가 업소 선전 일색이었다. 그럼에도 종달이 2년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가정(家長)이라는 비참한 책임감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참고 참았던 울화통이 바로 어제 아침에 터져버렸던 것이다. 신문기자 십 년 경력의 종달이 평기자도 아닌 취재부장을 맡고 있었지만 그것은 명색뿐이었지 그가 쓴 기사가 그대로 활자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위에 주간(主幹)이라는 작자가 막강한 ‘데스크’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간인 마달풍은 <미인계>의 발행인인 사장의 사촌동생이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언론인 자질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일간이었다. 물론 그의 문장 실력이란 것도 중학교 문예반 학생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다. 그런 주제에 종달이 쓴 멀쩡한 기사를 제 판에는 데스크를 본답시고 마구 난도질을 하기 일쑤였던 것이다.

데스크란 것이 기자들이 혹시 실수로 상호나 사람 이름을 잘못 썼다거나, 연도나 날짜를 잘못 표기했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만 해 준다면 천백 번 고맙다고 하겠지만 마주간이라는 자가 하는 짓거리는 전혀 판판이었다. 형편없는 문장 실력으로

이른바 개칠을 해 댔으므로 재수 없게 그의 손을 거친 기사는 여지없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자가 붉은 사인펜으로 원고지가 시뻘겋게 칠갑을 해 놓은 것을 보면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어서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그래서 기자들 사



황원갑

· 본회 회우
· 소설가
· 역사 역구가

“몰라서 문소? 도 대체 이 글이 어디가 잘못 돼서 멋대로 개칠을 했냐 그 말이오? 문장력이 라곤 개빨이나 쥐빨처럼 없는 주제에!” 그러자 젊은 기자들이 와아 하고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 해주니 속이 다 후련하다는 표정들이었다. 마 주간은 얼굴

했음 다여?”

주제에 문자까지 쓰자 종달은 저절로 웃음이 터지려 했지만 꼭 참고 다시 소리쳤다.

“어디 그따위 말이 다 있어! 정말로 그만 둘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어디 한번 투표라도 해 볼까? 누가 그 만두는 것이 회사를 위해서 더 나은지.”

그러자 보다 못한 전무가 말리고 나섰다.

“아, 이 사람들아! 그만 좀 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젊은이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냐구!”

종달이 전무에게 다가가 문제의 기사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자, 이걸 좀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이따위 바보짓을 하니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디 좀 자세히 지적해 봐요. 어떤 대목이 잘못 났다는 건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역전(驛前)은 역전 앞, 해변은 해변가, 미인은 아름다운 미인, 노부모는 늙으신 노부모, 광장은 넓은 광장, 창공은 푸른 창공... 전부 이따위 식으로 개칠을 했으니 이런 무식한 짓거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주간지가 잘 팔리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독자들이 볼 때 기자가 무식해서 이따위 기사를 썼다고 비웃지 저기 저 마 주간이 희대의 명 데스크라서 이렇게 잘 고쳤다고 생각하겠어요? 예잇, 버러지 같은 자식!”

종달의 참다못한 열변에 편집국 안은 또다시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사이에 세 불리를 절감한 마 주간은 핫바지에서 방귀 새듯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아마도 사촌 형인 사장에게 고자질을 하러 간 모양이었다. 그 사이에 전무가 씨익 웃으며 한마디 했다.

“으흐흐... 한 부장 되게 다혈질이구먼! 그대도 말을 좀 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종달이 사표를 내고 쫓겨난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도 못 되어서였다. 예상했던 대로 사장이 불러서 갔더니 사표를 내라는 것이었다. 일방적인 부당해고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자 징계에 돌려 파면을 하면 그나마 몇 푼 되지도 않는 퇴직금도 안 준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표를 써야만 했다.

한종달은 사표를 내고 책상 정리를 한 다음 마 주간의 책상 위에 이런 쪽지를 남겼다. ‘好食長生(잘 먹고 오래 살아라)’. [1]



〈삽화 - 심재복 회우〉

이에서 그의 별명은 ‘개칠’이나 ‘피바다’로 통했다.

어제 아침 출근하기가 무섭게 새로 나온 주간지를 펴 들고 자신의 기사를 찾아 읽어 보던 종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달풍에게 쫓아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였다.

“마 주간! 도대체 이게 뭐요?”

전무에서 경리직원인 미스 장에 이르기까지 열두어 명의 시선이 일시에 이쪽을 향했다. 주간지 책상 앞으로 쫓아간 종달은 주간지를 흔들어 보이며 따지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어째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멀쩡한 기사를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개칠을 하는 거요? 그동안 체면을 봐서 참아왔지만 오늘은 꼭 짚고 넘어가야겠소! 말 좀 해 보시오!”

“아니, 한 부장! 갑자기 뭘 갖구설랑 이렇게 소린 질르구 난리여?”

이 금세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그대로 당할 수는 없다는 듯 이렇게 반격을 가해왔다.

“아니, 이 사람 보자보자 하니 못하는 말이 없네 그라!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어? 아침부터 었다 대구 소릴 질르구 덤비는 거여? 위 아래두 없냐?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해두 되잖아? 으째서 온 사무실이 떠나가도록 고래고래 소릴 질르냐구!”

“왜, 내가 소리치는 건 못마땅하고 당신이 멀쩡한 기사에 마구 피칠갑을 해대는 건 당연하다 그거요? 제기랄, 너 나 잘 하세요!”

“뭣이 으째? 그래, 그 잘난 기사 내가 손질 좀 했다, 어쩔래? 데스크가 기사 좀 고치는 건 당연한 권리지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아? 그게 아니꼬우면 그만 두면 될 게 아녀! 건방지게 어디서 하극상이며, 하극상이! 일간지 기자 노릇

19면에서 이어집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미디어법 때문에 “지역 언론이 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방 방송사들은 지상파 3사 독점구조 아래 오래전부터 경영난을 겪어왔다. 미디어법으로 지역 방송시장은 대기업 등의 투자통로가 열려 회생 기회를 맞은 셈이다. 지역신문도 방송에 참여해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의 목적은 지난 10년간 자신들 편만 들던 자기네 TV의 기득권 구조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이다.

이미 미디어법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형태로 ‘다운그레이드’됐고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운그레이드’ 미디어법인데도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연일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에선 딱 부러지게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와 올해 ‘노무현 국민장 정국’ 때 민주당과 좌

파세력의 거짓 선전 선동에 겁먹고 바짝 엎드렸던 그 체질 그대로다. 진정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정의감도 없다 말인가...

지금의 미디어산업은 세계와 치열한 경쟁시대 이다. [2]

잊지 못할 그때 그일들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청와대 출입을 한지 얼마 안되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치사사건이 흘러 나왔다. 월남전이 한창인데, 〈다낭〉항구에서 미군군수 물자의 양륙, 육송을 둘러싼 비리에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이 양륙, 육송사업은 한국 업자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그야말로 전투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미수송선에서 양륙되면 이를 받아 대형 ‘트레이너’로 일선으로 운송하는데 도중에 베트남의 습격을 받기 일쑤여서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과병된 전투병의 만기제대자중 지원자를 투입하면 해결될 수 있었다. 육송도중 베트남의 습격을 받으면 일당백의 우리 운전자들은 자동화기로 용감히 응전, 모조리 물리치는 대단함에 미군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경쟁입찰에서 낙찰로 사업을 따낸 A씨가 정보부로 불려갔다. 사업포기각서



정준모

· 본회 회우
· 전 신아일보 도쿄특파원
· 6·25 종군기자

형과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차대통령을 수행하여 지방에 가서 호텔에 묵을때는 언제나 ‘트윈스’로 한 방을 썼다.

다행히 나는 정보부 신세를 지지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따분한 청와대 출입이 계속되던 어느날 金鍾信 공보비서관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경호실 차장 申東

寬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됐다. “신아일보에서 새로 나온 정아무개”라고 인사하자 “바로 당신이군, 각하께서 기분 나쁠 정도로 칭찬하시더군요”

申範植 대변인이 출입기자가 바뀌었다는 보고를 하는데 합석했던 모양이었다.

이를 계기로 나는 申차장과 가까워지고 매일 그의 방에서 잡담을 나누었다. 그의 방 출입은 프리패스였고, 국·과장의 업무보고 때도 자리를 비키지 않을 정도가 됐다.

고문치사 발설했다 정보부에 끌려갈뻔

를 쓰라는 것이었다.

경쟁입찰에서 따낸 하자없는 사업인데 왜 포기하라는가고 반발했다. 그 이면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자가 정보부장 김형욱에게 적지않은 뭉치돈을 건넸기 때문이다. A씨는 고문에 못이겨 포기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 A씨의 친동생 육군대령은 이름난 무골(武胷)이었다. 여기저기에 비리를 폭로하고 다녔다. 이 육군 대령은 남산 정보부 감찰실로 끌려 가서 무자비한 고문 끝에 죽고 말았다. 사건의 전모를 귀띔해주진 이는 가끔 나에게 큰 문제를 알려 주는 정보부의 HWANG이었다.

청와대 기자실에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렸으나 모두가 들은체도 하지 않았다. 나는 신문, 통신, 방송에 일제히 보도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데 힘이 확 빠졌다. 그런데 코리아헤럴드의 尹益漢형이 출입문에서 나에게 나오라는 손짓이었다.

밖으로 나가보니 화단앞에서 ‘정선배’ 그런 말은 5분도 안되어 정보부장에게 알려진다’는 끔찍한 말이었다.

어찌 이런 기사실인가. 만정이 떨어졌다.

국방부 기자실이나 모든 부처기자실에서는 군사독재하에서도 못하는 말이 없었다. 독한 말을 쏟아부으며 울분을 달래지 않았던가. 이를 계기로 尹益漢

申範植 대변인은 차대통령으로부터 관공비를 받았는지 비서를 시켜 나를 불러들였다. 기자실로 비서가 와서 내 귀에 대고 대변인이 잠깐 들리시라는 말을 전했다.

무슨 일인가고 궁금했는데 대변인 방소파에 앉으면 말없이 봉투를 탁자 밑으로 건네는 것이었다.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초도순시가 시작된다.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맨 나중에 제주도가 되는 순서였다.

제주도 초도순시가 끝나면 서귀포에서 일박하는 순서로 한해의 초도순시는 끝난다.

서귀포 호텔에서에서도 尹형과는 한방이었다. 호텔음식에 질렸으니 밖에 나가 한식을 하자는 그의 제의에 어느 한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당시 호텔이나 한식당은 볼품이 없었다.

해물을 안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자리로 와 앉더니 “남편이 경찰관인데 仁川으로 전근가버려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라고 하소연. 나는 농담으로 섬에서 육지로 갔으니 영전아닌가고 했더니 두집살림이라 생활비가 이중으로 들고 휴가에 한번 다녀가려해도 항공비가 무척 부담이 된다”는 푸념이었다.

우리가 청와대 출입기자라는 말은 꺼

金泰運의
술 이야기
③



金泰運 회우

술 익는 마을

조지훈(趙芝薰·1920~1968)의 ‘완화삼’은 이렇게 시작된다.

차운산 바위우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구름 흘러가는 물길은 칠백리/ 나그네 긴 소매 꽃잎에 젖어/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이 밤 자면 저 마을에/ 꽃은 지리랴./ 다정하고 한 많음도 병인 양하여/ 달빛 아래 고요히 흔들리며 가노니….

술은 술 빛는 고장이 가까워 올수록 그 술맛이 유별나다고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

그는 요새 일본에서 한창 인기 있는 작가다.

그는 술을 위해 여행하고, 위스키를 테마로 해서 〈위스키 성지(聖地) 여행〉같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말하고 있다. “술이라는 건 그게 어떤 술이든 산지(產地)에서 마셔야 가장 제 맛이 나는 것 같다. 그 술이 만들어진 장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물론 와인이나 사케도 마찬가지다. 맥주 역시 그렇다. 산지에서 멀어질수록 그 술을 구성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조금씩 바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흔히 말하듯이 “좋은 술은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법이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무라카미의 발길 닿는 곳에 싱글 몰트든 스카치 위스키든 그 향이 더욱 은은해지곤 한다.

위에서 보듯 시인 조지훈도 목월(朴木月)에게 보낸 시 ‘완화삼’에서 “술 익는 강마을의 저녁 노을이여.” 술 빛는 고장에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고, 무라카미도 “술이 만들어진 장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했다.

주선(酒仙)들의 생각이야 어디 다를 리 있겠는가.

여기 또 하나 색다른 에피소드가 있다. 일본에서는 술꾼을 죠고(上戸)라고 부른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을 게고(下戸)라고 한다.

기원전 220년경, 진시황제(秦始皇帝)는 만리장성(萬里長城)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하사품을 내리는 일을 자주 했었다. 황제는 산꼭대기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장성의 문(上戸)을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는 술을 내리고, 평지의 문(下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시첻말로 ‘주스’ 같은 것을 내린 데서 그 호칭이 달리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저 사람 죠고(上戸)”라고 하면 술깨나 마시고 호탕한 사람을 뜻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술 예찬’을 다시 들여보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여행한 그의 여행 테마는 위스키였다. 위스키를 세계 최초로 양조한 이 두 고장을 찾은 까닭은 “술을 빛는 고장에서 마시는 맛” 때문이었다.

그는 말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언어(言語)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이처럼 고생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잠자코 술잔을 내밀고, 당신은 그 걸 받아서 조용히 목안으로 흘려 넘기만 하면 된다. 너무도 심플하고 너무도 친밀하고 너무도 정확하다.”

1950년대 초.

시인 박인환(朴寅煥)은 우리들이 모여 있는 술자리에 나타나 의기양양하게 내민 술병이 있었다.

“야, 너희들 조니워커라는 술 마셔본 적 있어? 촌놈들이 뭘 마셨겠어. 오늘 목이나 축여.”

그가 내민 조니워커병은 거의 빈병이었고 밑으로 한 10cm 정도의 액체가 겨우 남아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보약처럼 조금씩 얻어 핥고 있었다.

당시 우리들은 퇴계로에 있는 ‘포엠’이란 카페에서 도라지위스키, 화랑위스키만 들이켜고 있었을 때니까. ㉠

〈전 경향신문 사회부장, 매일경제부국장 전 제주파라다이스 골프클럽 사장〉

내지도 않았는데 식당 주인아주머니는 옷차림을 보고 청와대 비서관쯤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나는 남편의 이름, 계급, 근무처를 써달라고 했다. 쪽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나는 申東寬차장실로 갔다. 이유는 묻지 말고 이사람 제주도로 되돌아가도록 부탁했다. 인사

청탁을 한번도 않은 분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는 경찰경비전화로 경기도 경찰국장에게 전화하면서 즉각 제주도 서귀포로 돌려보내고 자리도 아주 좋은데로 하라는 말까지 했다.

다음해 초도순시때 제주도에 갔지만 서귀포 허름한 한식당은 어느집인지 알 수도 없었고, 이 일은 극친한 尹형에게도 오늘날 까지 알리지 않고 있다. ㉡



회우동정

(가나다순)

오소백 선생 추모문집 발간



★ 강승훈(서울언론인클럽 회장) 회우 = 8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고 오소백 선생 1주기를 맞아 '영원한 사회부장 오소백'이란 추모문집을 발간,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날 오전에는 추모비도 제막했다.

국제해양 지명회의 참석



★ 문명호(본회 부회장) 회우 = 3~5일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15회 '국제해양 지명회의' 종합토론에 초청돼 1일 출국했다. 문회우는 이 회의에서 사회를 본다.

'경제풍월' 지에 칼럼기고



★ 여영무(뉴스앤피플 대표) 회우 = 월간 경제풍월 8월호에 IT 강국의 무사안일 '국가 보안 통합 질서'이란 칼럼 기고.

상호이해 증진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표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토론

★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회우 = 7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 초청되어



새미디어 법을 설명하고 방송정책 방향, 위원회의 운영 방침, 미디어 시장의 예측 등에 관해 패널들과의 토론을 벌였다.

세계 재난 통신 국제 회의 참가



★ 한중광(재해구호협회 부회장) 회우 = 8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재난통신 국제회의에 참가.

'경제풍월' 지에 칼럼기고



★ 구중서 회우 = 월간 경제풍월 8월호에 고임금 기득권의 과격 '세상모른채 시대역행'이란 칼럼 기고.

뉴욕 아들집 방문 1개월 체류



★ 박광춘 회우 = 뉴욕에 주재하고 있는 아들집 방문겸 관광차 9월 1일부터 한 달간 미국 여행.

한국골든에이지 상임이사로



★ 이광영(대한암협회/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 회우 = 7월 20일 열린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발기인 총회에서 상임이사에 선임됐다.

지중해 연안 크루즈 여행



★ 홍원기 본회 부회장(사진 좌), 한기호(운송신문 회장) 회우 =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로마를 거쳐 지중해 연안 크루즈 여행을 했다. 주요 기착지는 시칠리 섬, 바르셀로나, 마요르카 등지이다.

한국 방송 신문 연합 회장에



★ 김건이(전 총무이사) 회우 = 8월 중순 여의도 백화점에서 전 현직 언론인들의 사회봉사와 연구를 목적으로 창립된 한국방송신문연합회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경제풍월' 지에 칼럼기고



★ 송호빈 회우 = 월간 경제풍월에 'MB의 달라진 국정 운영 중도는 이념 아닌 실용'이란 칼럼 기고.

日本外相 표창받아



★ 정구중(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회우 = 8월 26일 한일 민간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주한 일본대사관저에서 일본 외상 표창을 받았다. 주한 일본 대사관측은 정 소장이 한일미래포럼을 설립하는 등 오랜 기간 민간차원에서 한일 양국의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大韓言論 출판지원 선정

본회 회보 大韓言論이 올 하반기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의 출판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극 중앙일보 부사장 대우 대기자)은 18일 올 하반기 출판지원 대상자 선정회의를 열어 본회 회보 대한언론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영기금은 또 본회 전 회장 고 이정석 추모문집간행위원회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이밖에 조용중 본회 회원 등 전현직 언론인 1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화번호변경

- ★ 남시욱 회우 = 010-4325-1787
- ★ 이상호 회우 = 010-3855-8624
- ★ 이창호 회우 = 010-3213-6649
- ★ 전용호 회우 = 010-9902-3594
- ★ 정재호(현정회 부회장) 회우 = 010-5904-6179
- ★ 조두흠 회우 = 010-8794-0744
- ★ 홍순일 회우 = 010-3299-3001

주소변경

- ★ 김영범 회우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성래미안 퍼스티지A 111-2401 (우) 137-042 집전화: 02-6401-6775

- ★ 송선무 회우 =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171 동문굿모닝빌 5차A 501-2401 (우) 448-710
- ★ 엄기형 회우 = 서울 노원구 월계동 322-1 성원아파트 406-1002 (우) 139-844
- ★ 이상호 회우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삼보A 302-1603 (우) 471-734
- ★ 이향숙 회우 = 서울 서초구 반포4동 60-5 미도2차A 502-1102 (우) 137-788
- ★ 황우권 회우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 덕소 2차H-Park A 117-302 (우) 472-900

신경식회우 명예박사학위 취득



신경식(4선 의원) 회우가 8월 20일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대학교에서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수여 직후 찍은 가족사진. 신경식 회우(가운 착용), 오른쪽이 부인 최금녀(시인·본회회우), 장남이고 왼쪽이 며느리와 손자이다. 이날 신경식회우의 학위 수여식에는 강승훈, 맹태균, 김영범, 김성배 회우 등 본회회원 10여명이 참석해 신회우의 명예박사 학위 취득을 축하했다.

회비납부

김의수, 김호기(2009년 8월), 신동식(2009), 유승택(2009년 8월 6일), 이달영(2010),

부음

★ 최병욱 회우 = 상배 8월 11일 오전 9시 목동 이대병원에서, 발인 8월 13일 오전



매월
관리비 만원
깎아주는게 어디야!

₩ 10,000



IBK My APT 카드

아파트 관리비, IBK기업은행이 깎아드려요

아파트 관리비, 이제 카드로 내세요
마감날 잔액 채길 필요 없고, 일일이 은행갈 필요도 없고
IBK My APT 카드로 내면 매월 10%씩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됩니다
아끼는 주부 마음, IBK기업은행이 듣겠습니다

“관리비 깎아서
디저트 샀어요~”

→ 아파트 관리비 10% 할인 (최대 10,000원)



-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 통신비 3% 할인
- 영화 2,000원 할인
- 외식 10% 할인
- 주요 놀이공원 30~50% 할인
- 백화점, 할인점 무이자 할부

[카드신청은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www.ibk.co.kr)나 전화(1566-0088)로 발급 가능]



Korea Run Again

대한민국의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KRA 한국마사회가 먼저 뛰겠습니다

- **녹색 뉴딜의 기수** : 친환경의 말(馬)산업으로 2012년까지 2조 6천 2백억 원의 경제효과 및 3만 명의 고용 효과 달성
- **우리 농촌 살리기** : 4대강 유역 거점 승마장 설치 · 저수지 주변 관광 레저산업 개발
- **상생과 협력** : 농 · 축산 발전을 위한 1천억 원 중소기업 상생펀드 조성
- **사회공헌 초일류기업** : 농 · 어촌사랑 기부금 및 복지차량 지원, 임직원 봉사단 KRA Angels 활동 및 펀드 운용, 장애아 재활승마 등 이웃사랑 실천

